

2017년 12월 예비창간호

정릉 야책

마음을 스치다
스삭 스삭

정릉 야책
시작이야

정릉 야책
무제야

정릉 동네책방
'호박이닝쿨책'에서
만난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

차례

들어가는 말	04
--------	----

시시콜콜 별일 없이 산다

되어 있어야만 하는 일을 되어 있게 만드는 것 - 연극인 민새롬	07
넘어지는 일도 많지만 그것이 가장 정직한 삶일지도 - 스트롱미(Strong mee) 김미선 셰프	18
스스로 서고 서로를 세우다 - 청년 다미를 만나서	26
삶과 예술 - 금속공예가 이용무를 만나다	34
아저씨들의 놀이터, ‘짜롱 드 비’를 아시나요? - 여우(차재혁)를 만나	42

스삭스삭 마음을 스치다

빵 샀어요?	54
정릉과 정릉천, 도시에서 마을을 걷다	56
살수록 정드는 정릉	60
치즈를 닮은 길고양이	64
내 식대로 삶을 요리하기	66
철학이 필요해	68
포토에세이 _ 창밖 풍경	72

요리조리 깊이 파고들다

생활이 피곤하던 어느 날, 내게 왔다. 세 권의 책이.	81
‘유럽단편영화제’를 즐기는 몇 가지 팁	88
공공 미술, 외투를 벗는 예술	94
매니페스토(선언) 다시 읽기 - 중국 문화대혁명 결정문	98
국민개헌을 앞두고	104
 야책좌담.... 『82년생 김지영』 을 말하다	 116



들어가는 말

정릉동 아리랑시장 초입에 위치한 서점 ‘호박이닝쿨책’은 애초 야채 가게였던 공간이 동네 책방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2016년 문을 연 이 서점에 동네주민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며 조금씩 활기를 띠더니 내쳐 이렇게 마을잡지까지 내게 되었다.

‘야책’은 ‘야채’와 ‘책’을 합성한 조어다. ‘호박이닝쿨책’이라는 여섯 음절 단어보다 발음하기에 편한 두 음절짜리 이름 ‘야책’이 ‘야책人’들이 서점을 부르는 애칭이다. 여러 논의 끝에 잡지의 이름을 《정릉 야책》으로 정한 이유다.

마을잡지의 시작은 무겁지 않았다. 단순했다. ‘서점을 매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마을잡지 한번 만들어볼까? 그러나 편집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잡지 만들기 작업에 들어가자 예상치 않았던 난관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잡지에 대한 상이 서로 달랐거나 논의 과정이 부족했던 것이다.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모르겠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갈등 및 견해차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생산적이었다 하겠다.



이번 잡지의 특집 ‘시시콜콜 별일 있어 산다’에 주목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애초 기획명이 ‘괴짜인’이었던 이 꼭지는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자본주의적 삶의 궤적에서 벗어나 제 나름의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람들을 포착, 그들의 이야기를 지근거리에서 들어보는 인터뷰 섹션으로 기획되었다. 하지만 ‘괴짜인’이라는 표현이 이런 취지를 제대로 담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야책이 자리한 정릉은 쉽게 말해 무덤(릉)이 있는 동네다. 2014년 폴란드, 체코를 비롯한 여러 동유럽 국가들을 처음으로 둘러보면서 그네들의 주거 지역에 공동묘지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자꾸만 눈에 밟혔던 기억이 있다. 삶과 죽음이 그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웅변하는 것 같았다. 《정릉 야책》이 무덤이 있는 곳에서 탄생한 잡지라 생각하니 어쩐지 묘한 기분이 든다. 죽음이라고 하는 저 대체 불가능한 사건 속에는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의 기억들이 오롯이 담겨 있을 것이다. 《정릉 야책》이 작지만 빛나는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섬세하고 성실하게 포착하는 잡지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편집부



시시콜콜
별일 없이 산다



되어 있어야만 하는 일을
되어 있게 만드는 것

연극인 민새롬

글·이종찬 / 사진·차정미



민새롬. 그는 ‘연극인’이다.

나는 지금 그를 ‘연극인’이라고 다소 단정적으로 수식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가 아님에도, 정체성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구성되는 것이니 그것의 얼굴은 항상 이미 다수(多數)의 형태로 존재하기 마련임에도, 그저 맥락과 상황에 따라 모습을 바꿀 뿐임에도 말이다. 하지만 인간 민새롬을 말할 때 ‘연극인’이라는 정체성은 그에게 무척이나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저녁 미아리고개예술극장(미고개극장) 인근에 위치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성북구에 살며 문화예술과 관련한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 나는 민새롬 씨와 자연스레 스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모르지는 않더라도 누군가를 ‘안다’고 말하기 또한 애매한 상태였지만 그에게 어떤 본능적인 호기심이 분명히 있었고, 덕분에 이 인터뷰까지 이어지는 인연이 되었다.

나는 민새롬 씨에게 적어도 두 번 놀랐다. 어깨너머로 ‘민새롬’이란 이름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무의식중에 그가 여성일 거라 지레짐작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가 남성인 걸 알고 한 번 놀랐다. 그리고 예상외로 침착하고 섬세한 사람이어서 두 번 놀랐다. ‘연극인’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과장된 액션과 말투라는 통념과 그 사이의 거리는 무척이나 멀어보였다.

극장에 있을 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이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연극인 중에 기가 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우들은 관객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연출자는 또 그 강한 기의 배우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썩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저희 팀 동료들이 저를 다 무서워해요. 저와 아내가 싸우면 아주 영화를 찍습니다.

되어 있어야만 하는 일을 되어 있게 만드는 것

알고 보면 다혈질이라는 그의 말을 그러나 나는 절반만 믿기로 했다. ‘다혈질’과 ‘섬세함’이라는 기질이 반드시 상호배타적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기도 하거니와 타인과 언어를 매개로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노출과 은폐의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기 때문이다. ‘드러냄과 감추기의 변증법’이랄까.

그의 이력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학 시절 전공이다. 그는 학부 시절 경영학과 사회학을 복수전공 했다. 하지만 결국 그의 관심이 향한 곳은 경영학도 사회학도 아닌 연극이었다.

— 대학 때 배가 고파서 과자를 얻어먹으러 갔다가 열떨결에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작은 단순했지만 거기에 제가 열정을 쏟을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부분이요. 제가 운동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듣고 보니 연극은 무척이나 아날로그적인 예술 장르다. 연극의 시간은 언제나 1회적인 것으로, 매번 새롭게 지속된다. 심지어 동일한 작품을 동일한 배우가 동일한 스텝과 함께 매일 무대에 올린다 할지라도 말이다. 연극은 순전히 ‘몸뚱어리’ 하나만으로 무대의 시간을 매번 지탱해나가야만 한다. 그가 왜 운동을 좋아한다는 말을 덧붙였는지 이해가 간다. 연극과 운동 모두 ‘육체성’이 자신의 유일한 자산이다.

대학 동아리 시절 연기 경험도 있지만 그는 연기보다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의 물질성에 보다 큰 매혹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 결정적 매개자로 그는 한 명의 스승을 언급했다.

— 서강대학교 메리홀에서 연극부 활동과는 별도로 학생 기술조교로 일하게 됐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김지성 감독님 밑에서요. 호암아트홀 2대 조명감독으로 계시다 은퇴하고 메리홀에 오셨어요. 그때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됐어요. 김지성 감독님이 직업적 자부심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어서 처음 반 년 정도는 저 같은 초짜를 아예 봐주질 않으셨어요. 오기가 생겼죠. 그런데 2006년도였나, 처음으로 제 이름을 달고 극작가 이근삼 추모공연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이 손에 익지 않으니 하루는 새벽 4시에 나왔어요. 근데 감동인 게, 출근이 9시인데 이 분이 6시 반쯤에 나와서 4시간 동안 제 일을 봐주셨어요. 그때의 경험이 정말 굉장했어요. 극장 안에서 퍼포머(performer)로서가 아니라 환경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 그때 그 무언가가...

마지막 저 말줄임표는 지금 이 지면에 글을 쓰고 있는 이의 ‘연출’이 아니다. 실제로 민새롬 씨는 이 지점에서 잠시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진 이야기.

— 제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분이 정말 별 것 아닌 라인 정리에서부터 오만 시간을 쏟았어요. 장인 정신. 이런 게 공연 일이구나 싶더군요. 그날 새벽에 김지성 감독님이 오셨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십 년 동안 떠올려보지 않았던 기억이라 지금 울컥하네요. 그 과정이 지속되기를 바랐어요. 저도, 제가 속해 있는 극단 청년단도 그런 밀도 있는 삶으로 지속되기를 희망해요.



나뿐만 아니라 민새롬 씨의 사진을 찍기 위해 동행한 잡지 편집부의 차정미 씨조차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다.

—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무언가가 찌릿찌릿한데, 무언가를 아주 간신히 붙잡고 있는 듯한 마음이 저에게 있나 봐요. <요정의 왕> 속 인물 샤드룩처럼요. 마케팅 단계에 넘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대본을 손 보고 있는데 문득 ‘내가 이 작품을 왜 선택했지?’ 싶었어요.

<요정의 왕>은 지난여름 극단 청년단이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무대에 올렸던 작품이다. 그는 인터뷰 때 이 연극을 이렇게 소개했다. “무너져가는 주유소를 끝내 문 닫지 않고 있는 노인의 이야기”. 그리고 무언가를 아주 간신히 붙잡고 있는 듯한 마음. <요정의 왕> 속 ‘주유소’는 민새롬 씨에게 ‘연극’에 상응하는 하나의 알레고리였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극장이라는 공간이 좋아져서 연극 일을 하게 됐다고 말해요. 극장이라는 공간이 너무 좋았어요. 미친 듯이 극장 일을 했죠. 극장에서의 삶은 굉장히 구체적인 삶이었어요. ‘직업’으로 서라기 보다 몰입하는 일이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멋있어야 해요. 멋있고 보람이 되는 일. 그게 저에겐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극장 그 자체가 목표가 됐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방식이요.

비유하자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 쏘아주는 사람이군요, 멋진데요, 하자 그는 손사래를 쳤다.

— 되어 있어야만 하는 일을 되어 있게 만드는 것.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 민새롬 씨는 대학로 연극판에서 조명 디자이너로서 커리어를 이어나간다. 그러다 만난 동료들이 배우가 아니라 스텝이었고 이 인연을 계기로 ‘극단 청년단’을 만들게 된다. 청년단은 스텝 극단, 즉 소속된 배우들 없이 스텝으로만 구성된 극단이다. 다섯 명의 디자이너와 세 명의 연출. 아마도 배우가 없는 유일한 극단이 아닐까 싶다. 올해로 9년차, 만으로 8년이다. 민새롬 씨는 ‘극단 청년단’에서 연출을 담당하고 있다.

이야기는 자연스레 ‘젊은’ 연극인들의 연극 축제 ‘화학작용’으로 이어졌다. ‘화학작용’은 2014년 민새롬 씨가 동료 연극인들과 함께 기획한 프로젝트다. 2014, 2015년에는 대학로 오르다 소극장에서 진행하다가 2016년엔 쉬고, 올해 4년차 때 성북문화재단과 ‘마을담은소극장’의 공동 기획으로 미고개극장에서 다시 열렸다. 앞서 잠깐 언급한 <요정의 왕>이 올해 ‘화학작용’ 축제 때 극단 청년단이 무대에 올렸던 작품이다.

— 되어 있어야만 하는 일을 되어 있게 만드는 것

‘화학작용’의 탄생 배경과 관련하여 민새롭 씨는 국고 지원을 기다리는 공연예술 분야의 수동적 구조를 언급했다. 한번쯤 그것에서 탈피, 자력(自力)에 의해 판을 만들어 보고픈 갈망이 컸다고 한다.

-
- 연극은 폭발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평생 해도 몇 작품 하지 못하거든요. 성장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고 지원과 관련해서 한국은 ‘센터’만 있고 ‘주변’은 없는 구조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환경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쉽지가 않아요. 무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 말입니다.

민새롭 씨의 간절함이 응답을 받았던 것일까. 이번 ‘화학작용’에 참여한 연극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다.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첫 공식 일정으로 ‘화학작용’을 찾은 것이다.

도 장관은 상영작들 중 하나인 <해지>(이명우 작/연출)를 끝까지 관람한 뒤 연극인들과 함께 설렁탕을 먹으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해지>는 아내를 사별한 연극배우 출신 한 노인의 이야기를 담은 극이었는데, 이것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도 장관의 개인사와 묘하게 겹쳐지면서 뜻밖의 울림을 자아냈다. 올해 ‘화학작용’이 열렸던 미고개극장은 꽤나 흥미로운 공간이다. 도성 느낌을 자아내는 고즈넉한 외형이 눈길을 사로잡지만 내적으로는 그리 관객 친화적인 공간이 아니다. 극장 좌석의 물리적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극장에 앉아서 극을 관람하다 보면 어느새 도로와 면해 있는 바깥 공간으로부터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와 진동이 미세하게 전달된다. 그런데 미고개극장은 다음 단계에서 이 ‘불편함’이라는 감각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 지난겨울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반발한 연극인들이 만들고 운영한 광화문 ‘블랙 텐트’에서의

무대 관람 경험이 새삼 떠올랐다.

- 로컬, 즉 지역 극장으로서 미고개극장이 신진 연극인들의 성장 동력이 되는 장소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메이저가 아닌 개성 있는 마이너 작업에 적합한 공간으로요.

극단 청년단은 지난가를 미고개극장에서 또 한 편의 극 <눈 먼 사람들>을 무대에 올렸다. 눈에 띄는 건 이 작품이 시민 배우들과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시민 배우들은 오디션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선발되었다. 연출을 맡은 민새롭 씨는 극을 무대에 올리며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다. “한 편의 연극을 올리는 일이 ‘직업’이 되어 혹여나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시민과의 협업 과정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다.

- 어마어마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물론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비전문’ 배우들과 만나다 해서 교육 강좌 프로그램 같은 식으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극의 모든 과정을 노출하고 함께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배우 분들에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이 아니라 동료의식을 갖고 작업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청년단이 배우가 없는 팀이기도 했고요. ‘시민 연극’이라 하지만 저희 청년단도 당연히 타이틀을 걸고 한 작품이에요. 모두들 죽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은 있었을지라도 소양의 측면에서 너무 좋은 배우들을 만났어요. 이런 배우들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그에게 기억에 남는 시민 배우 분이나 에피소드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 다들 기억에 남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40대 서동선 배우 분이 떠오릅니다. 평생 집과 직장만 다닌 분이셨는데 와이프와 딸에게 새로운 도전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게 사실 표현만 보면 굉장히 신파인데, 이상하리만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두 달여 동안 회사가 있는 과천에서 퇴근하자마자 양복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늦어서 미안한 모습으로 매번 연습장을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시던 모습이 지금 눈앞에 아른거리네요.



마지막으로 ‘청년단’이라는 이름에 대해 물어봤다. 아무리 마지노선을 늦춰 잡아도 만 39세 이후로는 장년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 청년단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소 장난기 섞인 질문이었다. ‘서북청년단’도 아니고, 인터뷰를 정리하며 가볍게 웃자고 던진 얘기였지만, 그는 의외의 진중한 답변을 들려주었다.

— 군대에서 시를 쓰는 선임병과 단돌이 내무반에서 생활한 적이 있어요. 선임은 당시 사랑하던 사람이 큰 사고로 죽고 나서 그 일을 풀어내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 또한 여자 친구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었고, 또 몸을 움직이는 걸 워낙 좋아하던 사람이 내내 사무실에 갇혀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자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한정된 공간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단돌이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상대가 큰 의미의 존재가 됐어요. ‘청년단’이라는 이름에는 인생에서 가장 섬세한 변화의 시기라는 의미에서 푸를 ‘청(靑)’, 해 ‘년(年)’이라는 속뜻이 담겨 있어요. 삶에서 그런 구간을 매력적으로 포착하는 팀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레이먼드 카버를 좋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미세할지언정 결정적인 변화의 국면을 섬세하게 포착해내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지점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팀이 되고 싶다는 염원을 담아 만든 이름이에요.

극단 청년단은 지금까지 레이먼드 카버 원작의 단편소설들을 여러 차례 무대 위에 올려왔다. 영문학을 전공한 필자 또한 대학원 석사 논문을 레이먼드 카버로 쓰려 했을 정도로 ‘카버 팬’이었다고 말하자 민새롬 씨는 반색을 하며 반가워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사건을 들려달라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카버는 “제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술을 끊은 게 더 자랑스롭습니다.”라 답한 적이 있다. 카버가 심각한 수준의 알콜 중독자이긴 했지만, 자신이 이룬 작가적 성취와 관련하여 무언가 그럴듯한 자의식적인 멘트가 나오리라 예상했던 독자들을 보기 좋게 배반하는 답변이었다.

카버의 이 쿨한 태도는 묘하게 민새롭 씨를 닮은 구석이 있다. 그 또한 자신이 그토록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매달려 있는 연극을 절대적으로 신화화하지 않는다.

— 그런데 한편으론 극장이 너무 좋았다기보다, 그때 그 대학 시절이 제가 무언가에 몰입하고픈 시기였는지도 몰라요. 만약 제가 그 시기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군대를 다녀온 뒤 무언가에 간절히 몰입하고픈 욕망이 있었는데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 조건이 맞은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연극을 하고 있네요.

자신의 책상에 민새롭 씨는 레이먼드 카버가 사랑한 안톤 체호프의 문장을 붙여 놓았다고 한다. “... **and suddenly everything became clear to him.**”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그에게 투명해졌다.

민새롭 씨는 40이 넘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연극을 하고 있을 것만 같다. 여전히 청년의 정신으로 말이다. ‘젊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 이중의 의미가 담겨 있다. ‘생물학적’ 젊음 외에 보다 중요한 ‘정신적’ 젊음이라는 필수 불가결의 가치. 그는 청년이고 앞으로도 청년일 것이다.



넘어지는 일도 많지만 그것이 가장 정직한 삶일지도

스트롱미(Strong mee) 김미선 셰프

글 / 사진 · 남경순

미선 셰프를 처음 만난 곳은 호박이닝쿨책 금요 파티였다. 뽀얀 피부에 계산 없이 웃는 표정과 막힘없이 술술 읊어대는 그녀의 화법은 나를 미소 짓게 했다. 그녀가 정릉 한 곳에서 코코넛 전문 카페를 운영하는 셰프라는 것은 한참 뒤에 알았다. 그 후 톱툰이 들게 된 그녀의 이야기들은 처음 이미지에 더해지며 내 가슴 속에 강렬하게 남았고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듣기만 해도 미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지는 일도 많지만 그것이 가장 정직한 삶일지도



어린 시절부터 정릉에서 쪽 살다가 3년 전쯤 고양시로 이사를 왔어요. 다시 정릉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가게를 운영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푸드 트럭을 3년째 하던 해 ‘이제 내 가게를 차려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스트롱미(Strong mee)를 오픈했죠.

스트롱미는 코코넛 음식 전문 카페이다. 오픈한 지 2년째, 코코넛을 재료로 만든 아이스크림, 커피, 케이크 등의 다양한 음식들이 있다. 점심시간에는 셰프가 매일 메뉴를 달리해 식사를 제공한다. 그녀가 코코넛을 주재료로 하는 가게를 연 이유가 궁금했다.

베트남 선교 활동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베트남에서 유명한 음식을 찾으니 코코넛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선교활동은 못 갔지만 그때 이후 코코넛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코코넛이 차매 예방에도 좋거든요.

미션 셰프 할머니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으셨다. 점점 달라져가는 할머니의 모습과 병간호를 하는 가족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다. 비슷한 일들을 더 이상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녀의 마음이 코코넛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했다고 한다.

조사를 하다 보니 태국이 코코넛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가지고 태국에 가서 코코넛 농장도 가고, 코코넛 손질법, 코코넛 음식 조리법 등을 배웠어요. 귀국 후에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한 끝에 코코넛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완성했어요.

그녀의 태국 방문기는 2015년 EBS 다큐멘터리, <청춘! 세계 도전기>에 방영되기도 했다. 영상을 보고 있노라니 씩씩하고 당찬 그녀만의 매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완성하고 그녀가 처음 찾은 곳은 거리였다. 요즘은 <백종원의 푸드 트럭>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을 만큼 푸드 트럭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환경이 열악했다.

취직은 하고 싶지 않았고 먹고 살 방법은 찾아야 했죠. 벼랑 끝에 몰렸어요. 개발한 코코넛 아이스크림이 반응이 좋아서 용기를 내서 푸드 트럭을 시작했어요. 우선, 대출을 받아 차를 샀고요. 이후 김포, 헤이리 등 프리마켓이 열리는 서울·경기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푸드 트럭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던 때라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얻은 것도 있어요. 일단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주방 막내로 일할 때는 제 요리 실력을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현장에서는 직접 반응이 오니까요. 푸드 트럭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자신감이에요. 잃은 거요? 잃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미션 셰프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이에 비해 경험이 풍부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험의 기회는 찾아오기도 하지만 스스로 찾을 때 오기도 한다. 그녀가 처음 요리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였을까.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 어머니는 학습지 교사를 10년 넘게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그런 분야의 일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종이접기, 미술, 도예를 배웠고,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데 그때는 남자아이들만 주로 하던 라디오 조립 대회, 고무동력기 대회에 나가기도 했어요. 요리는 그 가운데 하나였어요. 어렸을 적에 이모가 김장을 한다고 하면 쫓아가서 구경하고 배우고 그랬어요. 당시 <EBS 꼬마요리사>가 인기였는데, 프로그램을 녹화까지 해서 보고 또 보고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보니 가게 곳곳에 미션 셰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작은 소품부터 그림, 글씨, 페인트까지 그녀의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음식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과정임을 깨닫게 된다.

저는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무작정 지원하고 도전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TV를 보다가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를 우연히 봤어요. 그 순간 ‘저곳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조리 특성화고등학교였는데, 경쟁이 치열했어요.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고 해서 처음으로 공부라는 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렵게 입학하고, 자연스럽게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자격증을 학창 시절에 다 땀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또래 친구들이 수능 공부를 하듯이 당연하게 자격증을 땀어요.

고등학교 때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창업동아리를 만든 거였어요. 당시에는 떡, 한식, 일식 등의 음식 관련 동아리가 많았는데, 늘 배우는 것이 요리라서 동아리만큼은 다른 활동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창업을 하는 게 꿈이어서 창업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을 모아 교장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책을 사서 직접 작성해 보고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을 찾아가 인터뷰도 했어요. 그분들의 창업 사례를 들으면서 미래를 꿈꿨죠.

또래 친구들과 달리 자신의 직업을 일찍 결정하고 준비했던 미션 셰프. 그러나 대학은 가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가게를 운영할 건데 몇 천 만원씩 비용을 쓰며 왜 대학을 가야하는 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모님은 ‘대학교가 다는 아니지만 캠퍼스 생활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대를 하셨어요. 엄청 싸웠어요. 그러다가

꼭 가야 한다면 가고 싶은 대학을 미리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에 들어야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전국에 조리학과가 있는 대학이 그리 많지 않은데, 대전에 있던 우송대학교에 눈길이 갔어요. 지방에 있긴 했지만 미국의 유명한 CIA요리학교 시스템을 적용하고 그 대학 출신 교수들이 직접 가르치기도 했거든요. 우송대학교에 떨어지면 판 곳은 갈 마음이 없었는데 붙고 말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한 학기 다니고 나니 그만두고 싶었어요. 일본으로 가고 싶었죠.

미션 셰프는 일본으로 가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준비했다. 당시 대학로에 있던 국제교류센터를 매일같이 찾아가 언어교환 스티디도 하고, 일본 홈스테이 픽업 알바를 하면서 일본어를 익혔다.

지금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많이 알려졌지만 그때만 해도 대중화되지는 않았다. 듣다 보니 이 사람, 유행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할 뿐.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준비한 지 2년 만에 합격했어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놀았어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면서 여행이 아닌 삶을 살아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부모님도 없고 연고지도 없으니 뭐든 저 혼자 해야 했어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면접을 보면 매번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 일본어 수준이 문제였어요. 일하기에는 부족했던 거예요. 돈은 떨어져 가고 일은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갔어요. 3개월 정도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했어요. 요리도 늘고 돈도 벌었지만 몸이 지쳐갔어요. 일본어는 생각만큼 늘지 않았고요. ‘내가 일을 하러 여기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 왜 오려고 했는지 뭘 배워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됐죠. 우여곡절 끝에 프랜차이즈 복어 가게에서 일하게 됐어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많더라고요. 중국인, 조선족, 일본인, 재

일교포, 한국인까지 다양했어요. 알고 보니 그 주변이 유흥거리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깡패와 경찰이 공존하는 세계였어요.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그때는 복어 가게 외에 브라질 흑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거주하며 게스트하우스 일도 도왔어요. 틈틈이 일본어 능력시험 1급도 준비했구요.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하루는 싸이 월드를 접속하게 됐어요. 대학교 친구들의 MT 사진이 있더라고요. 부러웠어요. 그리고 복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게 대학생활이지’, ‘이런 일들이 내 나이에 어울리는 경험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도 하고 싶어 졌구요.

미션 셰프의 일본 생활은 흥미로웠다.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하지 않아도 될 고생들도 많았다. 그것도 스스로 선택해서 말이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녀가 경험하고 느꼈던 많은 감정이 결국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미션 셰프는 복학 후 정말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했다. MT도 가고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그리고 다시 캐나다로 떠났다. 긴 시간을 거쳐 졸업한 학교. 졸업 후에는 여러 호텔과 음식점에서 일을 했다. 그런데 생각처럼 한 곳에서 오래 일은 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주변 사람들이 끈기가 없다고 해서 정말 그런가 싶어 자괴감도 많이 느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본래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하니 다시 창업으로 돌아온 거죠. 푸드 트럭은 창업을 고민하면서 시작한 거였어요. 푸드 트럭이 주로 주말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평일에 시간을 내서 1년 정도 가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가게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렴한 월세, 권리금이 없는 곳. 저한테 주어진 조건 안에서

가게를 찾다 보니 쉽지 않았어요. 조건에 맞는 곳은 뭐든 하자가 있었죠.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창문이나 하수구가 없다든가 뭔가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합정동 부근에 건물을 구하고 가계약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시세보다 3배를 높게 부른 가격에 공정하지 못하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여러 일이 많았어요.

상처받고 좌절하고 있을 때, 다시 포기하려고 할 때 지금의 스트롱미가 눈에 들어왔어요. 되돌아보면 1년간 저도 공간을 보는 눈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창고로 쓰였던 곳인데 그냥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게를 오픈하고 푸드 트럭 때 함께 동고동락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공덕 프리마켓 늘장 대표님도 만났고, K2 인터내셔널 코리아 대표님도 만났고요. 정릉에서 다 만난 게 신기해요. 정릉에서.

스트롱미는 이제 꽤 많은 단골이 생겼다.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축제에 참여하기도 했다. 미션 셰프의 다음 활동이 궁금했다.

저는 사람들이 지불한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도록 고품질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요. 언제와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이 되었으면 해요. 한편으로는 코코넛이 좀 더 대중화가 되었으면 해요.



스스로 서고, 서로를 세우다

청년 다미를 만나서

글·김가희 / 사진·홍승완

스물두 살 김다미 씨는 현재 <공간민들레>의 인턴으로 있다.

<공간민들레>는 청소년들을 위한 1년 과정의 대안교육공간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움을 이어가던 <공간민들레>는 2015년부터 오딧세이 학교 친구들과도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다미 씨를 알게 된 것은 2015년으로, 청년연구모임 ‘4.2Lab(사이랩)’을 통해서였다. ‘사이랩’은 청년들 스스로 청년 세대의 대안적인 길을 찾아 나선 프로젝트 모임이었다. 그들 모임에 함께할 기회가 있었던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았고, 2년이 지나 이렇게 잡지 인터뷰를 빌미로 다미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1) 서울시 교육청이 2015년부터 혁신교육과정으로 도입한 고교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고교 학년제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고교 1학년 1년 동안 자유로운 사고와 성찰, 도전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를 제공하고자 서울시교육청과 대안교육현장이 함께 운영하는 민관협력 모델로 운영된다.

민들레와의 만남



가희: ‘사이랩’ 결과 보고집에서 다미 씨가 직접 쓴 자기소개 글을 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 실망을 하고 학교를 나오게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실망했는지 더 이야기해주시겠어요?

다미: 하루 종일 앉아서 받는 수업이 힘들고 공부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주는 억압적인 분위기가 싫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이유는 선생님 때문이었어요.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퍼진 사건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해결해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의 말만 듣고 아이들 앞에서 저를 문제아라고 단정해버리시는 거예요. 친구들과과는 생각이 달랐을 뿐인데 말이죠.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 학교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쓸모가 있을지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내 생각으로 산 게 아니라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참조: http://blog.naver.com/sen_odyssey/220846905147)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괴로웠어요. 그런 저를 보고 부모님께서 <공간민들레>를 먼저 제안해주셨어요. 교육잡지 <민들레>를 구독하고 계셨던 어머니는 <공간민들레>를 염두에 두고 학교를 그만두자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가희: <공간민들레>에 가게 된 것에 만족하나요? 일반학교와 <공간민들레>는 어떻게 다른가요?

다미: 학교를 나오지 않은 제 모습이 그려지지 않아요. 일반학교와 민들레의 차이점은 아주 많지만 우선 교육과정과 교육방식 그리고 학생을 대하는 어른의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수학을 싫어했는데 민들레에서 수학사 과목을 들으면서 흥미를 가질 수 있었어요. 단순히 외웠던 공식들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생긴 것이고, 그런 것들이 축적된 역사적 맥락을 알게 되니 수학이 다르게 인식됐어요. 민들레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고, 책을 같이 읽고 영상 등의 여러 매체들을 활용해서 배워요. 배움을 위한 매체를 직접 선택할 기회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무기력한 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민들레에서는 그런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고 공부할 때의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어요. 1년 과정이라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공부는 혼자서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희: 학교교육에서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학교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민들레는 공동체 각 구성원들이 함께 규칙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있나요?

다미: 수업에서 배우는 것보다 친구들과 길잡이들²⁾에게서 배우는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공동체 경험은 제주도에 가서 함께 지내는 2주간의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돼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등산을 하는데 산을 오르며 힘든 상황을 서로 살피고 돌봐주는 경험을 하게 되고, 산에 올라가서는 몸을 두드려 소리를 내는 바디퍼커션을 하면서 서로 합을 맞춰보기도 해요.

매주 월요일에는 길잡이와 함께하는 그룹미팅을 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자치회가 있는데요. 자치회는 아이들과 길잡이 전체, 즉 민들레 전 구성원들이 다 모이는 자리예요.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친구들한테 어떤 일이 있고,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모아가는 시간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민들레 슬로건인 ‘스스로 서고 서로를 세우는’ 연습을 직접 하게 돼요.

그리고 피드백인데요. 서로서로 피드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아이들과 피드백 워크숍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피드백하는 게 쉽지 않지만 길잡이들의 피드백을 잘 들으면서 점차 피드백을 하게 돼요. 처음부터 누구나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한 분위기 속에서 점차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뢰가 있어서 가능한 일인데요.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도 신뢰가 있다는 점이 느껴지는데 그게 신기하기도 해요.

2) <공간민들레>에서는 교사를 길잡이로 부른다.

사이를 사유하다

가희: 청소년기 뿐 아니라 청년 세대들도 자신의 삶을 새로 세팅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미 씨는 민들레 이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필리핀 봉사 경험과 ‘사이랩’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그리고 <공간민들레>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들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다미: 네,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 사이에 갭 이어(gap year)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갭 이어를 ‘사이랩’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필리핀 봉사는 대안학교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 민들레 추천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때가 열아홉 살이었는데 스무 살이 되면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해외 NGO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찾아보자는 목적도 있었고요, 필리핀의 이주민 지역에서 주민들과 봉제센터와 의료센터 등을 운영하는 경험을 했어요. 필리핀 봉사활동 후에는 ‘사이랩’ 활동을 했는데요. 그 때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사이랩’ 활동은 제가 아직 청소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 언니, 오빠들을 만나면서 청년으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언니, 오빠들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규모가 큰 워크숍과 행사 기획들을 해보면서 책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뭔가 제대로 해 본 느낌을 받았어요.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사이랩’ 활동을 했던 헤민이 박원순 시장에게 제안해서 지금 갭 이어 TF를 꾸렸다고 들었어요. 헤민에게 청소년과 청년 사이에 갭 이어가 필요하다고 얘기해봐야겠어요.

민들레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 얘기를 하면, 제일 친한 친구는 <하자센터>에서 하는 영 셰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셰프의 길로 가려고 준비 중이고요, 대안학교 출신들은 특별전형이 있어서 성공회대에 많이 가요. 거기서 여러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알바하면서 아직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귀농을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서로 가는 길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시간이 걸려도 지지해 주세요



가희: 저도 1년 동안 갭 이어를 신청하고 싶어지네요. 민들레 1년 과정 이후 삶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생활방식에 변화가 있을 텐데, 이후 그런 삶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들레에서 인턴십을 하는데, 인턴십은 본인이 원하는 건가요? 앞으로 교사가 되고 싶어서 민들레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나요?

다미: 과정을 마치면서 길잡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과정 후에도 민들레에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인턴십도 민들레에서 먼저 제안해주셨어요. 제가 민들레랑 너무 잘 맞아서, 민들레를 가장 오래 다닌 학생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선배 입장에서 아이들과 민들레 생활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선배의 입장,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할지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 길잡이로서의 입장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민들레 과정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할지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에 맞춰져 있잖아요. 처음에는 질문이 왜 필요한지 모르고 귀찮아하던 친구들이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변화를 보는 게 즐거워요. 민들레에서 인턴을 하다 보니 다른 대안학교에 대해 궁금해지고 학교 교사가 되어서 작지만 내가 한 경험들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지금 방송대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음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음악을 매개로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교육활동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민들레를 떠나 다른 대안학교 인턴십을 해볼 예정이고, 앞으로 여러 인턴십을 경험하면서 저의 길을 찾아가 보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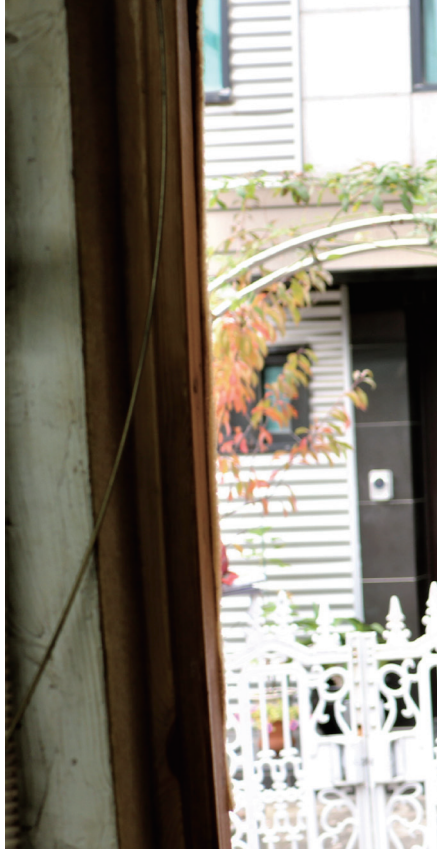
아이들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계신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조언이 아니라 지지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조언보다는 위로를 받고 싶은 거니까요. 뭔가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 때 옆에서 괜찮다는 말 한마디면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어른이 있으면 좋고, 부모님이 지지자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에필로그

짧은 시간이지만 다미 씨랑 돌이켜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친밀한 감정이 생겨났다. 인터뷰의 힘인 것 같다. 내가 인터뷰를 통해 친밀함을 경험했듯이,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세상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gap(갭)을 확보하면 좋겠다. 온전히 일 년을 뺄 수 없다면 하루를 쪼개서 한 시간씩이라도 나와 세상을 위한 시간을 내어보면 좋겠다.

삶과 예술,

금속공예가 이용무를 만나다



글·이연수 / 사진·홍승완

이용무 프로필

27년간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국가 공모전 대상2회 수상

그 외 공모전 출품 30여회 수상

금속공예 작품 공모전 심사위원 역임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개인전을 포함 50여회 작품 전시

대가야 유물 복원 사업 작업

<왕과 왕비의 금관, 금걸이 등 장신구류 복원 작업>

영화 <군도> <역린> <사도> <남한산성>, 드라마 <도깨비>의 메인 장신구류 작업



금속공예가의 작업실

성북구 정릉의 주택가 골목에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 노란 등불을 이고 있는 곳이 있다. 노란 등불 아래 나무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 금속공예가 이용무 작가의 작업실(MEISTER)이 있다. 세평 남짓한 이곳이 이용무 작가가 1년 365일 빠짐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를 지키며 그의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하는 곳이다. 이곳은 수십 년 간 이발소로 운영되었던 곳으로 그가 5년 전 이곳을 처음 인수받았을 때는 정말 지저분하고 시설도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랬던 이곳을 이용무 작가는 두 달이 넘게 쓸고 닦고, 작업대를 만들고 해서 지금의 작업실을 완성했다. 금속과 나무를 다뤄야 하는 작업의 특성상 필요한 장비와 기계공구들이 꽤 많은 편인데 이것들이 필요에 따라 이곳저곳 정말 한 치의 오차 없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장소가 협소하므로 작업 동선을 고려해서 최적의 위치에 배치해야만 하는 그의 고민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그 어느 곳 하나 작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보인다. 전등 하나, 수납선반 하나하나까지도.

손길 닿은 곳마다 섬세한 아름다움

이용무 작가는 주로 은과 나무로 작업을 한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작품을 만져보고 감상해 본 바 그의 자부심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가 만든 펜대로 직접 글씨를 써보았다. 손에 착 들어와 잡히는 그립감과 좋은 나무가 주는 따스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정말 좋았다. 애뜻하고 따뜻한 편지가 절로 써질 것만 같았다.

그의 작품집을 찬찬히 보니, 신혼부부의 커플링도 있고 부모님께 선물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술잔도 있다. 그리고 요리사들이 쓰는 칼의 손잡이가 있다. 일식 요리사들이 자신만의 식도를 구입하여 손잡이를 다시 제작 의뢰한다고 한다. 구매한 칼의 손잡이도 이미 훌륭하지만 자신의 손에 꼭 맞는 그립감을 위해 개별 제작을 하는 것이란다. 그의 작품은 눈을 크게 뜨고 가까이 다가가서 찬찬히 살펴봐야 볼 수 있는 면면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세세하고 아주 작은 것까지 심혈을 기울인 섬세한 아름다움이 곳곳에 숨어 있다. 때로는 작품의 정면보다 뒷면이 더 많은 감상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은 등의 금속표면에 무늬를 넣을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은판을 가늘게 잘라 대나무바구니처럼 엮는 은판 겹짜기, 질감용 망치에 작가의 문양을 만들고 그것을 두드려 무늬를 내는 망치질감, 전동 롤러를 이용해 은판에 무늬를 만드는 기법,

은선을 실처럼 꼬아 붙여서 장식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작업방법들이 있으며, 새로운 표현방식을 끊임없이 시도해서 작품에 적용해 보곤 한다.



그의 작품 중 특히 나의 눈을 끈 것은 아기수저이다. 술잎(술가락에서 입에 들어가는 부분)은 은으로 만들었는데, 아기의 입에 들고나기 편하도록 적당히 가름한 모양을 하고 있다. 섬세한 세공과 금박을 입힌 술목(술잎과 손잡이의 연결부분)에 유창목으로 만든 술가락총(술가락의 손잡이 부분)을 연결했다. 술가락 전체를 은으로 만들면 무게도 무거워지고 가격대도 많이 올라가게 되므로 나무 손잡이를 선택했다. 유창목은 아기의 작고 통통한 손이 이 술가락총을 잡고 느낄 촉감을 고려하여 선택한 소재이다. 유창목은 아기들이 입에 넣고 빨아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고급수종이다. 비중이 1.4로 나무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편에 속하며 유분이 많고 향이 좋아서 유명한 향수 샤넬 No.5의 원료로 쓰이기도 한다. 처음에는 갈색을 띠다가 사용할수록 색깔이 변하면서 카키 빛이 도는 오묘한 색을 띤다.



그는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 소품도 작업했다. 최근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드라마 <도깨비>의 고려시대 임금과 장수들의 머리 장신구들이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의 소품작업은 인물의 성격도 고려해야 하고, 감독의 의도하고도 잘 맞아야하므로 고민해야 할 것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거의 모든 작품을 일일이 손으로 제작해야하니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한다. 금방 가시화되는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지원 말이다.

다재다능한 손재주

이용무 작가는 작품이 완성되면 자료로 쓰일 작품사진도 직접 찍는다. 그의 블로그에 있는 수많은 작품사진 역시 직접 찍어서 올린 것이다. 사진작업을 좋아해서 한 때 사진 공부도 했었다는 그의 실력은 ‘사진 잘 찍는’ 정도의 수준을 훌쩍 넘어서 있었다. 게다가 고가의 카메라가 아닌 휴대폰으로 찍었다고 하니 더더욱 놀라웠다. 그의 휴대폰은 최신형도 아닌데 말이다. 그의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다. “카메라는 도구일 뿐, 사진은 결국 사람이 찍는 것!” 이라는.

어린 시절의 그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리고 손재주가 좋은 아이였다.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그런 그를 인사동으로 박물관으로 데리고 다니기를 좋아하셨고, 자연스레 미술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다. 대학 공예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금속공예가 자신이 아주 잘 할 수 있고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이라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든든한 지원군, 가족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다. 대한민국의 아버지로 살면서,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대처되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그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로 살고 싶다고 한다. “작가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그는 “작가란 오랜 시간동안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을 창의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해 주었다. 이 용무 작가가 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작품을 만들며, 힘들지만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내와 두 아이의 이해와 응원 덕분이다. 이용무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목소리가 커지고 눈빛이 빛나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고마운 아내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자라주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그의 표정과 목소리에 저절로 드러났다.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은 과학고등학교를 목표로 할 정도로 뛰어난 우등생이고, 초등학교 5학년인 예쁜 딸은 아버지를 닮아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쪽에 뛰어난 소질을 보인다고 한다.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 준 것은 모두 아내의 덕분이라며 아내자랑도 소심하게나마 해주었다.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우리가 사는 정릉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동네면 좋겠다”고 한다. 역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생각은 모두 같은 것 같다.

만약 경제적, 현실적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그가 정말 하고 싶은 작업이 무엇일까? 그가 궁극적으로 만들어 내고 싶은 작품은 무엇일까?

그가 궁극적으로 만들어 내고 싶은 작품은 무엇일까? 그의 대답은 ‘은식기’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 화려한 테이블웨어들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한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모두 형상화해서 작품으로 실현해보고 싶다고 한다.

글을 마치며

이용무 작가와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들이 최소한의 정당한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는 그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해본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보면 어느 젊은이가 결혼식의 주례를 맡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이를 먹고, 손주들에게 그네나 목마를 만들어주는 할아버지로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그의 꿈도 이루어 질 것이다. 정릉의 작은 작업실에서의 힘든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힘들었지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가 만든 은식기를 꼭 보고 싶다.





아저씨들의 놀이터, <싸롱 드 비>를 아시나요?

여우(차재혁)를 만나

글·김가희 / 사진·홍승완

<싸롱 드 비>는 아저씨들의 놀이터로 수유리 4.19민주묘지 가는 길에 있다. <싸롱 드 비>는 아저씨 밴드 ‘싸롱밴드’ 멤버들의 연습실이며 공연장이고, 책과 술을 파는 곳이기도 하다. 살롱 문화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찾아 간 <싸롱 드 비>에서 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두 가지 욕망을 만났다.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꿈과 타인들과 공감하고 싶은 꿈, 이 두 가지 욕망은 같이 갈 수 있을까? <싸롱 드 비> 아저씨 여우(차재혁)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살롱이 아니라 싸롱

“살롱이 아니라 ‘싸롱’이에요.” <싸롱 드 비>의 비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던 나에게 B에 대해 설명하던 여우는 살롱이 아니라 싸롱이라는 것을 무척 강조한다. <싸롱 드 비>는 B급이다. B-Grade, Beverages, Books, Basement, Band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인 Beers, 비어란 말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 모든 B들보다 싸롱이라는 말에 더 꽂혀버렸다. ‘아!’ 하는 깨달음의 탄성이 저절로 나왔다. ‘싸롱’, 모두를 무장해제 시키는 묘하게 매력적인 말이다. <싸롱 드 비>를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가 아닐까 싶다. “고급문화가 아닌 아저씨들의 그런, 대중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싸롱 드 비>다.

다양함이 묻어나는 곳

<싸롱 드 비>는 아저씨들의 개인 놀이터다. 2013년에 공간 준비에 나섰다. 다섯 명의 아저씨들이 함께 투자하고 월세도 같이 내고 있다. 다섯 아저씨들은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인연으로 만났다. ‘행복한 부모 아카데미’에 함께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술도 마시고 얘기를 하다가 각자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한다는 공통된 로망을 발견했다. <싸롱 드 비>는 각자가 원하는 방을 모아 놓은 셈이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방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방을 만들고 책방 주인이 꿈인 사람을 위해 책을 팔고, 생맥주 코브라에서 술을 꼭 따라 마셔야 한다는 사람을 위해 코브라도 설치했다. 음악 듣고 영화 보는 공간도 꾸몄다. 그러나 무엇보다 <싸롱 드 비>는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 서로 하고 싶은 게 조금씩 다르지만 이 다섯 명은 밴드 ‘싸롱밴드’로 뭉쳤으며, ‘싸롱밴드’의 공연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본인들의 공연뿐만 아니라 <싸롱 드 비>에 서는 수십 개의 강북 밴드들의 네트워크인 ‘강북음악크루’의 음악도 자주 들을 수 있다.

<싸롱 드 비>는 사적 공간이며 영업 공간이지만 밴드들의 공연장이자 동네 청소년들의 전시회장으로 활용되며 사적인 공간을 넘어 마을의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거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두 해 동안은 인문학 강좌를 열었고, 올해는 공공미술 수업을 주민들과 함께 하기도 했다. 여우는 “서로의 다양한 욕구들을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그 다양함이 묻어나는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싸롱 드 비>의 특색은 바로 자연스러움과 다양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싸롱 드 비>의 현재와 미래

<싸롱 드 비>는 다섯 명에서 출발해 현재 여덟 명으로 멤버 수가 늘어났다.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각자 월세를 나눠서 내기 때문에 <싸롱 드 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수익이 나면 동네 청년단체나 <재미난 학교>, 작은 도서관에 기부를 했다. 하지만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점 운영을 앞으로는 주말에만 할까 고민 중이며, 책방 운영도 계속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책방 운영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 주점으로 운영하며 각자 요일을 정해 공간을 관리하다보니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싸롱 드 비>에 오면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삶과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삶, 이 두 가지 삶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모든 공동체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라는 점을 <싸롱 드 비>에서도 확인하게 된다.

여우는 <싸롱 드 비> ‘시즌 2’를 준비 중이라고 말한다. 처음 시작할 때 이 공간을 10년, 20년 지속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한다. 이 목표는 지켜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여우는 욕심을 더 내서 <싸롱 드 비> 같은 공간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싸롱 드 비>에서 한 일 중 ‘다큐유랑’(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의 홍보 배급 상부상조 프로젝트)과 함께 한 다큐상영회와 청소년들의 모임장소로 제공할 수 있었던 일이 가장 보람되었다고 한다. 사적 공간으로서의 <싸롱 드 비>와 마을의 거점 공간으로서의 <싸롱 드 비>의 두 가지 모습은 서로 충돌하는 듯하면서도 적절하게 자신만의 모습을 찾아가는 중인 것 같다. 앞으로 <싸롱 드 비>의 ‘시즌 2’가 기대된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여우는 <싸롱 드 비> 멤버들 중 인터뷰 담당인가 보다. 미리 읽고 간 다른 인터뷰 기사도 여우가 인터뷰했다고 한다. 여우는 인터뷰만 잘 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잘 하나보다. ‘싸롱밴드’의 보컬이 바로 여우다. 밴드를 만들 때 서로 보컬을 하겠다고 싸우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한다. 다행히 다섯 명이 겹치는 악기도 없어 싸울 일은 없었던 것 같다. 드럼 담당은 밴드 만들면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 실력은 꽤 좋단다.

여우는 주변에서 여성성이 강한 평화주의자라는 평을 받는다. 학교 다닐 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쇠파이프 꽤나 휘둘렀는데, 지금은 그 당시 자신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노동조합 활동을 오래 했고, 음식점도 했고, 대안학교 <삼각산 재미난 학교> 행정교사도 했다. 그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우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인 것 같다는 점이다. 단언컨대 부인이 하고 싶은데 자기 때문에 못한 일은 없을 거라 말한다. 여우의 부인은 매년 1월이면 인도에 한 달씩 갔다 온다.

여우는 아내의 개인적인 꿈과 생활을 인정하고 지원해줄 뿐 아니라 자신의 삶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여우의 인생관은 하루를 재밌게 사는 거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현재 즐길 수 있는 것을 포기하기는 싫다. 얼마 전에도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꽤 오래 갔다 왔는데,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어떻게 가능하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는 일주일이 넘어가는 일은 계획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해야 한다.

여우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 시집을 내는 거다. 음식점을 할 때였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며 시를 쓰기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이미 시집 낼 계획을 짜 놓았다. 표지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아 생각하니 주위에 디자인해줄 사람이 있고, 교정, 편집도 필요할 텐데 다행히 주변에 출판사 다니는 친구가 있으며 <재미난 학교> 학부모 중에 인쇄소하시는 분도 계시니, 이 동네에서 시집 내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야말로 마을 시집의 탄생이라 하겠다. 아름다운 동네 풍경이지 싶다. 이웃끼리 서로 알게 되면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여기 <싸롱 드 비>에도 인테리어 일, 음악 스튜디오 일, 전기, IT, 디자인 등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 힘으로 <싸롱 드 비>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다.

그가 어제 썼다는 시의 일부를 들려준다.

내 생이 백일 남았다면
매일 한 편씩 시를 써서
마지막 날에 당신에게 전해주겠소.

내년에는 여우의 시집을 기다려도 좋겠다.

에필로그

<싸롱 드 비>의 다른 멤버들을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인터뷰 과정에서 강북에서 20년 넘게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 ‘뽀’이나 20대 청년들 모임 ‘동네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40대는 바로 <싸롱 드 비>가 대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랜 시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부러웠다. 태어난 곳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동네에서 재미나고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나가는 여우도 훌륭해 보였다. 여우와 <싸롱 드 비> 식구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전한다.











스삭스삭
마음을 스치다



빵 샀어요?

황현숙

“안녕하세요?” 라고 한 것 같았다. 같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말투가 어눌한 탓도 있었지만 갑자기 너무 가깝게 다가선 그의 큰 얼굴 때문이었다. “어,어,어...” 마치 말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어눌한 내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애초부터 답은 들을 생각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 앉았지만 놀란 마음은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진정이 되지 않았다. 처음의 놀람 때문인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경계 때문인지 그 때 이후 몇 번 더 그를 봤지만 익숙함이 주는 친근감을 갖기는 어려웠다.

왜 여태껏 그를 몰랐을까 싶게 그는 이른 바 마을버스의 단골손님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버스정류장으로 나와 순환되어 다시 돌아오는 마을버스를 타는 일은 그의 중요한 일과였다. 단골손님이라곤 해도 그리 환영 받는 손님은 아니었던 탓에 기사에 따라서는 아예 버스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면 그는 자신을 허락하는 기사가 올 때까지 하염없이 정류장에 앉아 있곤 했다. 버스에 오르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예의 그 큰 얼굴을 들이밀며 그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

며칠 전, 점심을 걸렀지만 저녁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요기라도 할 요량으로 빵 몇 개를 사들고 마을버스에 올랐다. 다행히 버스에 태워주는 기사를 만났는지 그가 버스에 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내게 인사를 했고,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런데 내가 들고 있던 빵 봉지를 유심히 바라보던 그가 “빵 샀어요?” 라고 물었다.

그가 다른 말을 할 줄은 몰랐던 탓에 얼결에 “네...” 라고 답하고는 말끝을 흐렸다. 그는 다시 물었다. “빵 샀어요?” 그가 내 대답을 못 들었나 하고 이번에는 좀 더 크게 “네”라고 대답해주었는데도 그는 다시 “빵 샀어요?”라고 물었다. 그제야 그의 의도를 파악한 내가 “빵 먹고 싶어요.”하자 그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에게서 빵을 받은 그는 앉은 자리에서 두 개를 다 먹어 버렸다.

그리고 보니 그는 나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 왔었다. “치마를 입었네요”, “비와요”, “밥 먹었어요?” 등의 말을 했지만 나의 경계심이 그의 많은 언어들에 “안녕하세요?”라고만 듣고 있었던 거였다. 어지간히 배가 고팠던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내게 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께서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었으니 복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빵 두 개가 뭐 그리 복 받을 일이라고..... 그 저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내(川)에 “빵 샀어요?” 라는 징검다리 하나가 더 놓였다.

정릉과 정릉천, 도시에서 마을을 걷다

김순화

정릉에 가려면 사람 사는 시끌벅적한 주택가의 시장통 골목을 지나간다. 처음 정릉에 갔던 날 나는 은연중에 경주나 부여에 있는 능을 생각했었나 보다. 그래서 넓은 대자연 속의 시원스러운 곳을 따라 가노라면 능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정표를 따라가는 길은 도심 속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이었다. 그것도 시끌벅적하고 복잡한 시장통 골목길을 지나가야 했다. 이런 곳에 과연 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렇게 들어간 능은 의외로 왕릉이 아니었다. 무슨 왕후의 능이라고 한다. 그것도 왕후의 능 하나만 덩령 있다. 능은 대개 왕릉이거나 왕과 왕후의 능이 함께 있지 않은가? 그 왕후 얼마나 대단한 왕후이길래 이렇게 혼자 딱 하니 자리 잡고 계시나 싶었다. 세워 놓은 안내문을 읽어보니 태조의 계비란다. 정비도 아니고 계비의 능을 이렇게 멋지게 왕릉처럼 해 놓고 모시는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해서는 정릉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정비는 향처로 북한에 능이 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고향에 향처가 있어도, 한양에서 활동하면서 경치를 두었다고 한다. 경치도 공식적인 부인이었다. 그리고 한양에 자신의 세력이 약했던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이 경치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 신덕왕후는 실질적으로 조선 최초의 왕후가 된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렇게 모시는 것에 공감이 간다.

표를 끊고 정릉으로 들어가 능침을 올라 뒤돌아서서 왔던 곳을 향해 시야를 돌리면, 저 하늘 밑에 북한산이 있고 그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정릉동이 한눈에 들어온다. 산자락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 길들이 언덕을 따라 꼬불꼬불 경사져 있다. 누군가는 이런 꼬불꼬불 경사진 곳에 살다 보니 평지에 가면 심심하다고 한다. 좋고 나쁘고 편하고 불편한 것도 습관들이기 나름인가보다. 꼬불꼬불한 경사진 길은 걷기에 숨이 차고 사람을 살짝 느리게 만드니, 대도시의 빠르고 반듯하게 정리된 기계적인 느낌에서 약간 비껴 나 있는 듯하다.

몇 년 전 영화 <건축학개론>이 나왔을 때, 정릉동에 산다고 하니 “거기는 아파트가 없는 동네죠?” 한다. 하긴 정릉동에는 주택이 많다. 오랜 역사에 어울리게 주택도 다양하다. 새로 지어 산뜻해 보이는 다세대 주택도 있고 꼬불꼬불한 길 따라 오래되고 제 나름대로의 개성으로 멋을 부리며 자리 잡고 있는 주택도 많다. 물론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이 나라에 걸맞게 정릉동에도 아파트가 적지 않게 있다.

새로이 개발해서 이른바 살기 좋아졌다고 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언덕길은 피할 수 없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도 언덕길이 여전히 있다. 정릉2동에서 시작하는 정릉천을 따라가는 산책길도 역시 언덕길이다. 내가 정릉천을 정릉2동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지리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다. 원래 정릉천은 북한산에서 시작해 주옥 흘러서 월곡천과 만난 후 청계천으로 합류한다. 그런데 북한산에서 시작되어 잘 흘러내려오던 정릉천은 정릉2동에서 사라진다. 정릉2동에서 종암사거리까지 복개되어 도로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도로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 종암사거리에서 다시 정릉천이 나온다.

이렇게 천이 복개되어 보이지 않으니 내가 정릉천을 산책할 때는 정릉2동에서

천이 시작되는 느낌이다. 복개된 정릉천은 어두운 하수구같이 되어버렸지만, 정릉천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잘 담고 있다. 강바닥은 계곡의 돌과 자갈, 모래가 그대로 있고, 주위에는 풀이나 나무가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기하게도 청둥오리가 몇 마리 살고 있다. 10여 년 전에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 몇 마리가 있었는데 여전히 몇 마리가 그대로 있다. 좀 더 번식했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청둥오리를 본다.

정릉천은 비가 오면 시원스레 내리는 물이 폭포를 연상시키는 곳도 많다. 도심 속의 천이 경사져 있어 더욱 운치가 있는 풍광을 연출해 낸다. 그리고 아름답리 큰 나무도 종종 눈에 띄는데, 그 나무 아래 대청마루를 놓고 더운 여름에 마을 사람들이 앉아 더위를 식히는 모습은 참으로 시원해 보인다. 정릉천과 정릉이 있는 곳 이곳이 내가 사는 마을이다. 도시의 경계에서 벗어나 마을을 걷고 싶다면 한번쯤 산책을 나서도 좋을 것이다.



살수록 정드는 정릉

허영미

높고 푸른 하늘이 나와 마주 하고 있는 것 같아 내 맘이 너무 편했다. 정릉과 나와
의 인연, 이 느낌... 정릉의 첫 인상이었다. 뜻하지 않게 정릉 땅에 발을 내딛고, 내
가 알고 있던 정릉이 아닌 다른 모습의 정릉이 나를 맞이한 그날, 난 이곳에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나 집을 보러 다니면, 집을 고르는 선택 기준은 첫 번째 조용한지, 두 번째 푸
른 나무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편리함, 즉 ‘생활의 편리함’ 순이었다. 물론 아
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우선순위가 아이들 위주였던 것 같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세 가지 순위가 있었다.

정릉 사람이 된지 이제 1년 2개월째... 무더운 아니 너무 뜨거운 한 여름, 8월에 이
사했다. 어쩔 수 없이 더운 여름에 이사를 했는데, 정말 이사는 여름에 하면 안 되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직접 집을 나르지는 않지만, 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
들고 여러 가지로 다른 계절에 비해 힘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경험을 하고나
니 이사가 겁이 났다.

그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 이사를 하고 정릉 생활이 시작 되었다. 낮가림이 심한 나
는 사람 사귀는 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 아직도 이웃 간에 인사만 하는 정도이다.
그러니 동네에 아는 사람은 없다. 외출을 하더라도 차로 이동하니, 더욱욱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이곳 정릉에 와서 산책을 많이 하게 되었다. 북악 스카이웨이 둘레길, 성북동으로 내려가서 한성대 입구 까지. 삼청동, 돈암동, 주변 정릉동까지... 이렇게 걷다 보면 차로 다닐 때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만나게 된다. 물론 어느 동네든 차로 이동 할 때와 걸을 때는 다른 게 당연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곳 정릉은 다른 곳과 달리 그간 보지 못했던 옛 것도 볼 수 있고, 자연과 더불어 어우러진 것들이 남다르다.

결혼하고 신혼집을 부천 중동에 마련해서 1년. 서울 양천구 본가에 들어가 10년.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10년을 넘게 살았다. 사실 난 일산을 너무 좋아했다. 아니 사랑했다. 자연과 함께 하면서도 서울 어느 곳 보다는 훨씬 살기 좋고 편리한 도시였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행복지수가 높았던 걸로 기억한다. 아름다운 호수 공원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아파트와 함께 어우러진 멋진 공원들도 많고 가족 중심 도시, 한편 예술인 도시라 할 만큼 일산에는 예술가들도 많이 살고 큰 공연장들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맘껏 하면서 살 수 있는 도시라 여기고 살며 좋아했다.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으로 나를 매료시키는 호수공원을 특히 사랑하여 즐겨 다녔다.

그 곳을 떠나 정릉에 살면서 일산을 그리워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이 나질 않는다. 헤어진 남자 친구를 잊고 새로운 남자 친구의 매력에 빠지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정릉은 어려가지 색을 띠고 있다. 어느 곳은 회색, 진한 회색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진한 초록이, 또 다른 곳에서는 밝은 주황색이, 진한 노랑색이, 맑고 깨끗한 하얀색이 보인다.

배우는 걸 좋아하는 나는 체력만 허락한다면 학교 다니듯이 많이 배우러 다니고 싶다. 마음만 있다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또는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성북구의 문화적 공간과 기회가 많음에 적잖이 놀라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정릉과 성북동 경계에 있다. 산 안에 집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서울에 살면서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그리고 생활의 편리함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정겨운 것들을 마주할 수 있어 마음까지 편하다. 사실 예전에는 가끔 지나는 길에 정릉을 보면 복닥거림으로 가득해 보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다. 아마도 경전철 공사로 더 그렇게 보였던 듯싶다. 공사가 끝나고 보니 한결 정리되고 안정된 모습이 너무 좋고 반갑다. 자연을 느끼며 산책하고, 문화 체험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환경이 아닐 수 없다. 나를 사로잡은 이곳, 정릉에서 문화와 자연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고 싶다.



치즈를 닮은 길고양이

김소희(한성여중 1학년 2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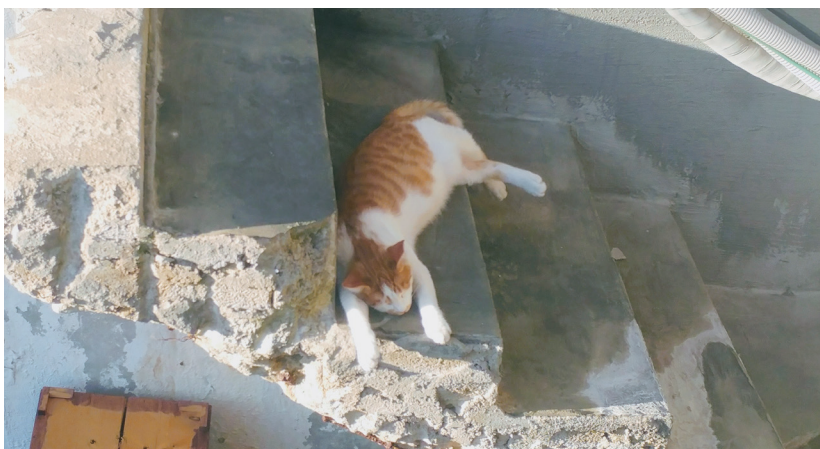
저녁 6시 30분쯤 수학학원으로 가는 내리막길에서 종종 마주치는 길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 사람 손을 많이 타서 그런지 사람이 오면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풍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기지개를 시원하게 펴기까지 한다. 꾀죄죄한 몰골을 했지만 이 길고양이는 초롱초롱한 눈과 치즈를 연상시키는 누런색과 하얀색으로 어우러진 예쁜 무늬의 털을 가지고 있다.

하리보 젤리를 질경질경 씹으며 건다가 이 길고양이와 마주친 어느 날, 꾀죄죄한 모습과는 달리 유난히도 깊고 검은 눈동자를 반짝거리며 고양이는 두 앞발을 공손하게 내밀며 내 앞으로 와서 앉았다. 달달한 냄새를 맡았는지 당당하고 뽐뽐스럽게 보였던 고양이의 어깨는 본능을 이기지 못한 채 공손하게 살짝 숙여진지 오래였다. 그러나 고양이에게 젤리를 먹여서 무슨 일이 생길 지도 모르는데다가 설령 젤리가 고양이에게 안전하다고 해도 딱 두개 남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즈베리 맛이라 아껴 놓았던 다홍빛 젤리를 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불쌍한 고양이를 두고 고개를 돌려 매정하게 학원으로 가는 걸음을 이어갔던 그날 이후 고양이는 단단히 빠졌는지 한동안 도통 보이지 않았다. 다시 고양이를 본 날, 그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처음으로 들었다. 여름이 물러갈 기미를 보이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나는 곧 다가올 가을을 기대하면서 가볍게 통 통 계단을 뛰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고양이도 기분이 좋은지 예쁘고 가는 소리로 ‘미야옹 야옹’했다.

그 고양이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설렘은 나의 학원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날도 난 그런 기대와 설렘을 품고 막 학원을 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엄마가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학원은 이번 주까지만 다닐 거라고 알려주었다. 조금 일찍 찾아왔을 뿐 예상했던 일이었다. 나는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비효율적인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었다. 엄마에게 알겠다는 대답을 하고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그날 내리막길에서는 고양이를 볼 수 없었다. 고양이가 금방이라도 풀 더미에서 짹짹하고 뛰어나와 내 앞에서 야옹할 것만 같아서 일부러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하지만 서글프게도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날이 그 내리막길에서 고양이를 만날 마지막 기회였는데 말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그 고양이 생각이 나서 기쁘고도 그리운 오묘한 기분이 든다. 정작 제대로 놀아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고작 길고양이 밖에 되지 않는 그 고양이가 나에게 이렇게 깊은 여운을 남기다니..... 그 고양이는 치즈를 닮은 것 같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다 먹고도 그 부드러운 맛이 아직 입에 남아 맴돌며 꽤 깊은 여운을 주는 그런 치즈를 닮았다.



내 식대로 삶을 요리하기

송석진

괴짜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명사 ‘괴짜’의 일차적 의미는 “괴상한 짓을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 나와 있다. 그렇다면 괴상한 짓은 어떤 것일까? 예문을 보니 ‘겨울에도 반팔 옷을 입는 괴짜 노인’, ‘그 괴짜는 항상 짝이 맞지 않는 양말을 신고 다닌다’가 있다. 두 예문으로 유추할 때 괴짜는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덥다고 느끼는 사람은 반팔을 입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짝이 맞지 않는 양말을 신었다고 해서 큰 일이 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다만 남들의 의문 어린 눈초리를 받을 뿐이다.

2년 전 3월, 여러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고 파주 임진각에 다녀온 일이 있었다. 아직 날씨가 쌀쌀했고 밤에 돌아올 것을 감안해 옷을 두겹게 입고 나갔다. 열이 잘 오르는 체질인데다, 한 낮에 홍대로 향하는 여정에 한껏 열이 오른 나는 집결지에 도착했을 땀 땀을 꽤나 흘리고 있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겹옷을 벗어 가방에 넣었다. 곧 출발을 했고, 열이 채 식지 않은 채로 출발한 나는 한동안 달리다가 셔츠마저 벗어 가방에 넣고 민소매 차림으로 달렸다. 쉽 없이 달려 열이 식지 않은 나는 계속 민소매 차림으로 달렸다. 그것이 인상적이었는지 후에 누군가 그 일을 가지고 “한 겨울에도 민소매 차림, 그는 식지 않는다”라며 나를 희화화하였다.

특수학교에서 사회복지무요원으로 일하던 때였다. 학교에서 일하면서 손 씻는 일이 잦아져 손수건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할 때는 보통 바지와 반팔셔츠를 입었는데

손수건을 바지주머니에 넣어두면 손을 씻고 꺼낼 때 손이 젖어 손수건을 꺼내기 불편하였고 바지도 젖어 불편함을 느꼈다. 바지도 젖지 않으면서 손수건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손수건을 바지의 벨트 고리에 걸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손수건을 당기면 쉽게 빠지지만, 그 외에는 빠지지 않아 사용이 편리했다. 그 모습을 본 돌봄 교실 선생님들은 손수건을 왜 거기에 차고 다니냐며 항상 나를 특이하다고 했다. 또 누군가는 벨트 고리에 찬 손수건을 보며 작업할 때 효율적인 것 같다며 멋있다고 했다.

자신과 다른 무언가를 접했을 때 그것이 우스꽝스럽다며 지나칠 것인가, 나와 다르다고 이상한 것으로 치부해버릴 것인가, 혹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들여다볼 것인가. 그것은 순전히 개인의 선택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말 하나하나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오해는 필연이고, 해명은 선택이다

철학이 필요해

이은아

우리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된다.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질서들이 더 이상 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을 말이다(이 만남이 ‘아직’이라면 기대해도 좋다). 이 당황스러운 순간에 직면하면 두 가지 길이 있다. 내 존재와의 혼란스러운 만남을 애써 외면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안정을 찾아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방법,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상황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하고 사유하면서 내 삶의 한 순간을 파열시키는 방법이다.

‘나는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네가 얘기하는 내가 정말 내가 맞는 지’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현자들이 답을 구하려 했던 이런 철학적 질문들을 우리도 하게 된다.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운 점은 무언가 찾았다 치더라도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허무를 안겨주며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무지개 너머 나의 완전함을 실현시켜줄 무언가가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찾고자 우리는 관습과 규범에 순응 혹은 걸돌며 일생을 방황 속에서 떠다니게 된다.

피할 수는 없는 걸까?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에 따르면 우리가 위에 언급한 ‘그 순간’을 만나는 것은 주체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이것이 삶의 비극이다. 우리가 만든 세계도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도 아닌데 이런 구조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규정하고, 그로 인해 뭔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잃어버린 부분들을 상상하게 만든다. 즉 사회의 규범, 법, 금지 등이 오히려 주체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욕망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다. 존재하지않는

것에 대한, 텅 비어있는 것에 대한 욕망은 지속적으로 우리 생을 균열시키고 그 틈을 현실은 관습과 규범 등으로 은폐하고 욕망을 억압한다.

사회는 존재의 욕망을 자꾸 물질적 대상으로 바꾸기도 하고(“네가 원하는 것은 돈이야, 집이야”) 지배 담론에 귀속시킨다(“여자로서의 혹은 남자로서의 도리를 지켜야지, 벗어나면 그건 일탈이고 타락이야”). 비록 욕망의 대상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침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 수 없는 무언가와 조우하면 그 비어있는 곳에서 허무나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는 현실의 이러한 기만적 요소에 속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순응(소외)하기, 허무에 빠지기, 그리고 욕망 인정. 이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내 욕망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역으로 자유를 줄 수 있다. 무의식은 주체의 사유에 파열을 내면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역동적인 열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측면이 아닐까? 이성의 존재가 아니라 무의식,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 말이다.

기존의 담론, 제도, 관습에 저항하는 뼈뺀 물음들 그리고 부단한 사유를 통해 나만의 개념을 세워야 한다. 사유 끝에 결국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절대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 고통을 즐기는 기술을 익히면 된다. 아무것도 없는 공백의 공간 안에서 새로운 나만의 의미와 개념을 창조해 낼 수 있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다. 대상이 없는 존재의 욕망은 절대 충족될 수 없고 그래서 순환할 수밖에 없기에..... 슬픈 우리의 운명이고 쉽지 않은

과정이다. 하지만 모르고 겪는 고통과 알고 겪는 고통이 가져오는 결과가 보기에
는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그 성격은 분명 다를 것이다. 당장 내일
부터 나에게 사유의 시간을 허락하자. 생활 속에서 ‘철학하기’가 필요한 순간이다.
고독하면 술과 책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첨언: 이글은 얼마 전부터 동네서점 <호박이닝쿨책>에서 진행 중인 철학 스터디
모임에서 공부하고 느낀 짧은 소회이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지적 공감을 느끼
고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 그리고 나름 ‘진리’의 모습이라고 생각
한다. 스터디를 통해 ‘나’와 ‘삶=환상=꿈’에 대한 이론구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 거시적 틀이 ‘나’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길 바란다.





창밖 풍경

글/사진 차정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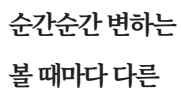


창 너머 보이는 산이 좋아서
곁에 두고 바라보고 싶어서
성북동으로 왔다



산 그림자가 환하거나 흐릿하거나
구름이 산처럼 흘러가거나 멈칫하거나
빛이 떠오르거나 빛이 사라지거나









산을 보고 있으면
오롯이 산과 나만 남는다
그 속에 오래 머물고 싶다





요리조리
깊이 파고들다



생활이 피곤하던 어느 날, 내게 왔다. 세 권의 책이.

김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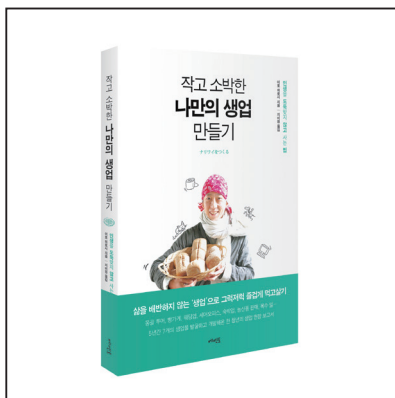
아마도 내 나이 서른 살이었을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던 꿈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지만 마음의 제법 큰 자리를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이 차지 하도록 내버려둔 때가. 1990년대 말 사람들은 IMF로 상징되는 빈궁함을 벗어나 려 했고, 유명배우는 늘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라며 사람들에게 돈을 벌라고... 음... 아니, 아니 돈을 쓰라고 유혹했고, 모 일간지에서는 재벌들에 관한 기획기사를 몇 주 연재했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돈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열심히 읽었다. 재미있게 읽었다. 하지만 기사를 모두 읽고 난 후 기사를 기획한 사람의 의도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내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재벌은 될 수 없다는 허 무함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미 그들과는 다른 리그에서 살도록 태어났다는 것을 그 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재벌들은 할 수 없는 나만의 재미를 찾아 즐기며 인생을 보내기로. 하지만 30대 내내 나는 돈에 아등바등 거렸고 하루 의 대부분을 늘 ‘일’을 하며 보냈다. 아주 많은 노래를 알고 있었던 나는 아주 많은 노래를 까먹었고, 꽤 노래를 잘 부르던 나는 노래를 부르던 근육을 풀어버렸다. 그 저 돈돈! 그저 돈돈! 내게 30대는 내내 ‘그저 돈돈!’뿐이었다.

확실히 마흔 살이었을 때다. 돈을 많이 번 동물이 대통령이 되었고 사람을 많이 죽 인 아버지를 가진 또 다른 동물이 그 다음 대통령이 될 것도 같았다. 즉 세상은 상 징적으로도 나쁜 곳이 되었다. 삼십대 땐 나 개인은 피곤해도 코리야는 좀 멋진 곳

같았었는데 말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회의 시스템 상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결국 나는 나쁜 놈들만 배불리는 것이로구나!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죽을 순 없었다. 인생을 바꿔야 했다. 자본주의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바꿀 힘이 없다면 최대한 자본주의적이지 않게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나쁜 놈들을 배불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육체가 편안하고 영혼이 살찌는 인생을 위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한 자본주의적이지 않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었을까? 최대한 내가 낸 세금을 내가 직접 소비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1. 동네 도서관 컴퓨터실 이용해서 일을 한다. (나는 번역을 하던 사람이다) 이 경우, 전기도 공공의 전기를 이용하게 된다.
2. 읽고 싶은 책은 꼭 도서관에 신청한다. 이 경우, 작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면서.
3. 화장실은 꼭 집 주변 지하철역 혹은 도서관의 것을 이용한다. 공공, 즉 세금으로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4. 나만의 샤워 방법 개발: 욕조의 물 내려가는 곳을 막고 샤워를 한 후, 그 물을 변기용으로 쓴다. 이 경우 같이 사는 식구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정신적으로 괴롭다.
5. 차를 없애고, 먼 곳은 자전거로, 가까운 곳은 걸어서 이동한다. 굳이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위안이 온다. (건강을 늘 챙기고 있다는 위안)
6. 채식주의자가 되어 본다. 약 3년 간 채식을 하였으나... 음 지속하기 어려웠다. 아니, 불가능했다!
7. 기타 등등

그러던 어느 날, 사십대 후반으로 접어 든 어느 날, 나는 내 자신에게 항의한다. 도시에서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 거면 도시를 떠나라고!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생활이 문득, 아주 피곤하게 느껴졌다. 어쩐다??? 그냥 막 살까??? 그런 고민들을 하던 중 아래 책들을 만났다. 친구나 연인을 사귀는 것처럼 책이라는 것도 어떤 인연이 있어야 읽게 되는데..... 이런 때 이 책들을 만났다는 것이 신기하다. 또한 내가 추구하는 생활이 그렇게 후진 건 아니라는, 나는 쓸쓸하고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는 확인을 하며 위안도 얻는다. 자, 여기 새로 사귄 내 친구들을 소개한다.



「작고 소박한 나만의 생업 만들기」
(이토 히로시 지음, 지은비 옮김, 메멘토, 2015)

작가의 말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죽을 만큼 노력해야 하는 이상한 시대”에 이 책을 만난 건 우연만은 아니겠다. 왜? 난 늘 평범하게 살고자 했고 지금도 그러느라 애쓰지만, 어릴 적 내 별명은 '오겔비'였고, 지금도 사람들의 한심한 눈빛을 자주 받기 때문이다.

맑스는 소외된 노동을 얘기했었다..... 난 소외된 생활을 얘기한다. 무슨 얘기냐고? 돈 버는 행위와 내 생활은 전혀 관련도 없고, 심지어는 돈을 벌기 위해 생활의 많은 부분(빨래를 하거나, 밥을 해먹는 등의 소소한 재미를 포함하여)을 언제나 나중으로 미루고 포기하기 일쑤다. 뒷날에 대한 걱정 없이 술 한 잔 해본 적 단 하루라도 있었나 싶다. 나 또한 대부분의 학창시절을 70년대와 80년대에 보낸 사람으로서, 바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삶의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태도가 몸에 배어있긴 하다. 90년대 후반 잠시 실직 상태였던 적이 있었다. 난 얼마나 초조해하며 새 직장을 얻지 못해 안달을 부렸는지 모른다. 왜 그리 바보 같았을까? 그게 어찌면 내게 제대로 ‘생활’이란 것을 해보란 기회였을지도 모르는데.....

물론 살다보니 나 또한 (체력이 약해서 그나마 다행이지) 꽤 전투적인 인간임을 알았기에, 이 책에서 얘기하는 ‘생활’을 소소히 챙기며 그 ‘생활’ 속에서 업을 만들어내는 게 내 기질에는 맞지 않을 수 있겠단 생각은 든다. 허나, 지금처럼 돈을 위해 ‘생활’을 제쳐놓는 일상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 소외된 생활을 내 인생의 줄기로 다시금 복원시켜야겠단 다짐을 해보며 책을 덮는다.



「고양이 마을로 들어가다」

(히라카와 가쓰미 지음. 남도현 옮김. 이숲, 2016)

“생물로서 인간은 영구적으로 성장을 계속 할 수 없다. 성장이 멈추면 성숙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헉, 이 자식이 웬일로 이리 근사한 말을? 인용한 말이니 너무 놀라지들 마시라 ㅎㅎ. ‘고양이 마을로 돌아가다’라는 제목은 언뜻 이 작가가 생태주의자 혹은 최소한 진보를 꿈꾸는 자가 아닐까 상상하게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작가는 보수주의자다. 현대의 인간과 그들의 삶과 사회에 대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간 큰일 나는데 연신 걱정을 해대는 ‘인디언 종족의 지혜로운 주장’ 같다.

자본주의는 주식회사라는 것을 발명해내며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으나 주식회사는 성장이라는 것이 그 생존방식이라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성장! 성장!’ 오로지 성장만을 외치고 있다. 아마도 세상 모든 만물은 저마다의 임계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물이 백도가 되면 그 형태가 바뀌는 것처럼. 자본주의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제 성장을 멈춰야 한다. 안 그러면 터진다. 팽!

나 또한 내가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를 떠나 최대 관심사는 언제나 지금보다 돈을 잘 버는 것이다. 그런 나, 당연히 불행하다. 행복한 순간이 별로 없다. 우리는 왜 이런 길을 걷고 있는가? 고양이들이 우리에게 묻는다, 그래서 당신들은 어디로 갈 거냐고.



「해방촌 고양이」

(황인숙 지음. 이정학 그림. 이숲, 2010)

황인숙 시인이 쓴 산문집이다. 해방촌고양이. 난 해방촌도 좋고, 고양이도 좋다. 그래서 펴든 책이다.

해방촌: 실제로 지금은 주거비를 포함 아마도 서울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지역일지 모르겠으나 해방촌이 주는 어감은 아직도 신산하다. 그래도 난 이 곳이 좋다. 단 순히 외국 애들이 많이 살아서다. 이곳에선 다양한 외국어가 들린다. 해외의 유명 리조트에라도 와있는 듯한 기분을 준다.

내게 왔다. 세 권의 책이.

고양이: 고양이와 함께 사는 소수의 몇 지인들을 제외하고 나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고양이들과 사는지 전혀 (그래,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다. 종종 그중 몇 마린 갓다버리라는 소리도 듣는다. 그럼에도 난 고양이가 무척 좋다. 단순히 고양이들이 예뻐서다. 굳이 좋은 생각을 해보려, 착한 생각을 해보려 애쓰지 않아도 고양이들을 보면 난 내가 마치 꽤 좋은 사람인 듯한 기분에 빠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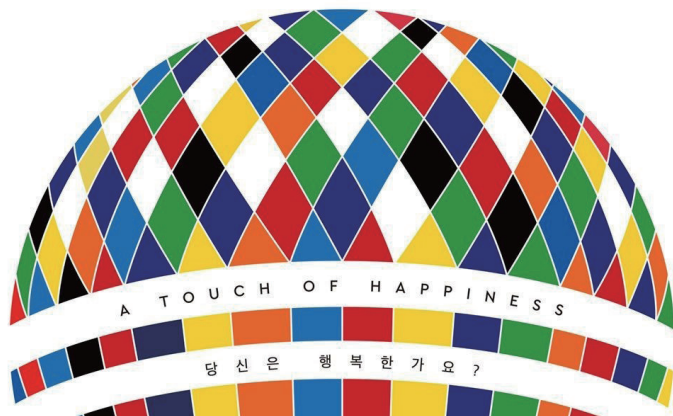
며, 그 정도 느낌에서 출발했기에, 이 책이 해방촌에 사는 고양이들 얘기이길 기대하며 열었으나, 이 책은 고양이가 좋아 고양이랑 해방촌에서 살고 있는 작가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한 책이다. 착하다. 그러니까 시를 쓰겠지. 그러니까 길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겠지. 그 고양이들이 눈에 밟혀 이사를 못가지. 읽다보니, 이 작가나 나 나 ㅋㅋ

울 엄마를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이들이 날 참 한심함 반 걱정 반으로 대한다. 근데, 이 작가와 나의 공통점: 그렇게 날 봐주는 이들이 나보다 불쌍해 보인다는 것 ㅋㅋ 남들 보기엔 이상해보일 수 있는 내 생활, 이젠 관성도 그 힘이 강해 바꿀 수도 없다. 그냥 이대로 살련다. 고양이들이랑 그리고 내 생각들이랑.

제5회 유럽단편영화제

THE 5TH EUROPE SHORT FILM FESTIVAL

2017. 5. 24. - 6. 4.



<유럽단편영화제>를 즐기는 몇 가지 팁

이종찬

성북구 아리랑고개 언덕에 위치한 ‘아리랑시네센터’는 일반 상업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달리 공공영화관입니다. ‘공공성’에 입각하여 비주류 독립영화 전용관(3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영화를 통한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들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람료가 저렴하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입니다.

아리랑시네센터는 KU시네마트랩과 공동으로 매년 <유럽단편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지난 봄 다섯 해째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세간 살이가 그리 크지 않아 어느 대형 영화제처럼 화려하고 ‘빠까번쩍’하지는 못하지만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만큼은 크게 모자람이 없다고 감히 자평합니다. 올해 상영작들을 모두 보고 단편을 작성한 이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이니 크게 의구심을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단편 영화에 대한 대중 일반의 인식은 그리 친숙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유럽 영화’라고 하면 이른바 ‘아트하우스 무비’(예술 영화)라고 하는 자의식 과잉의 영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단편 영화’는 또 어떤가요? 러닝 타임 90분~120분의 길이에 길들여진 관람객들에게 단편 영화의 문법은 굉장히 생소하기만 합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영화가 눈에 띄는 기승전결의 과정도 없이 돌연 끝나버리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관객은 그만 ‘멘붕’에 빠지고 맙니다. 이거 정말 끝난 거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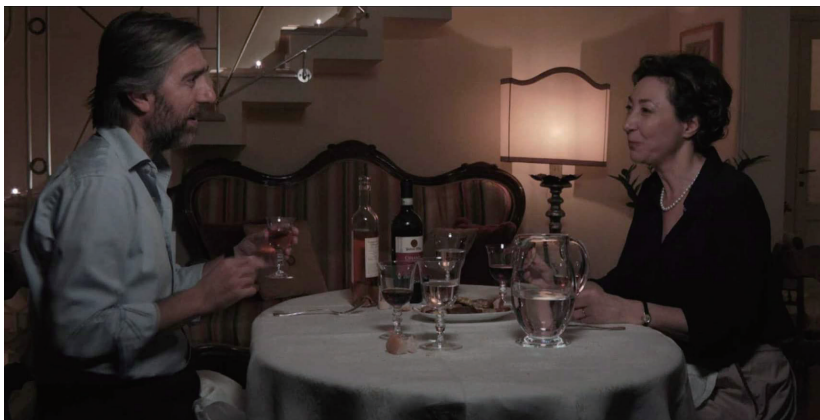
영화제 기간에 상영관 주위를 맴돌면서 관객들의 이런 곤혹스러움을 마주칠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내년 봄에도 변함없이 유럽단편영화제는 열릴 예정인데요. 이 지면을 통해 유럽단편 영화들을 즐기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세계지도와 함께 하기. 영화를 보기 전 내가 보고자 하는 영화들의 제작 국가를 확인해보시면 어떨까요. 영화가 카메라의 사각 프레임에 담고 있는 세계는 해당 지역(로컬)의 상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4회 영화제 상영작들 중 영국에서 제작된 한 단편의 예를 들어볼까요? 싱글맘이자 워킹맘인 한 젊은 여성이 복지수당 신청 과정에서 제도적 관료성에 답답함을 느끼고 사무실을 돌아 나오던 길거리 담벼락에는 ‘pro-Brexit’라는 글귀가 비뚤배뚤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느냐 마느냐란 문제를 두고 국민투표까지 갔을 정도로 첨예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데 ‘영국’이라는 지역성(로컬리티)을 시야에서 제외한다면 이해의 폭은 무척이나 협소해질 것입니다. 영화가 담고 있는 장소엔 그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단편’의 의미를 곱씹어보기. 단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시간의 짧음’으로 간단히 정리해버립니다. 물론 틀린 답은 아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최근 단편 영화들의 어떤 경향성을 바라보는 저의 아쉬움이 묻어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과 대학생들의 졸업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상영하는 영화제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들의 기술적 완성도를 보고 꽤나 놀랐습니다. 소위 ‘충무로’로 통칭되는 한국 영화계 현역 감독들의 그것과 견줘보더라도 전혀 뒤쳐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 아쉬웠습니다. 2프로그가 부족한 느낌이었달까요. 단편 특유의 압축미라던가, 모든 것을 다 구구절절이 설명해내려 하지 않는 태도 등 제가 보기에 단편의 형식에서만 온전히 감각할 수 있는 매력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단편 영화들을 즐길 수 있는 두 가지 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성’ 그리고 ‘단편 고유의 미학’,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관점에 의거해서 올 유럽단편영화제에서 눈에 띄었던 두 편의 작품을 언급해볼까 합니다.

먼저 소개하고픈 단편은 <이탈리아인 거리>(Boulevard des Italiens, 2014)입니다. 제작 국가는 이탈리아로 올 유럽단편영화제의 개막작이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후한 매력의 중년 남성 프란체스코는 하루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파리의 이탈리아인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그를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프란체스코는 그녀의 애정 어린 돌봄 노동 서비스를 받으며 하루의 일정을 안락하게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하려는 프란체스코를 현관에서 배웅하기 전에 아내는 그에게 청구서를 내줍니다. 거기에는 식탁에서 함께 대화하기, 포옹 및 키스해주기 등 감정 노동 서비스의 세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성의 가사 노동 영역은 무척이나 오랫동안 우리 눈에 가시화되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재생산 구조를 기저에서 가장 든든히 지탱해온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최근 들어 여성의 가사 노동은 ‘돌봄 노동’이라는 용어를 통해 대중의 인식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제기의 차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여성의 노동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왔다는 점, 두 번째는 그것이 물리적 ‘편의’와 더불어 심정적 ‘안락’을 제공한다는 점이지요. 다시 말해 돌봄 노동에는 ‘편의’와 ‘안락’이라는 두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인 거리>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적 가치 체계 내부로 수렴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인간의 정서적, 감정적 영역(안락)마저도 자본의 입김에 수렴되어 일정하게 매뉴얼화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영화는 포르투갈 단편 <안녕>(Farewell, 2015)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올 유럽단편영화제의 모든 상영작들 중 최고로 뽑고픈 작품입니다. 어느 여름의 해변가 그리고 세 청년. 그들은 달(moon)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이 언제 떠오를까? 남은 월출(月出) 시간을 두고 서로 약간의 견해차는 있지만 대동소이, 그 시간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좀 따분하고 무료해 보이는 그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갖가지 행동으로 채워 넣습니다. 공중에 던진 공이 모래 위에 닿기 전까지 박수를 치거나, 끝말잇기 게임을 하거나, 달이 완전히 떠오르기 전까지 있는 힘껏 숨을 참아보거나. 마침내 눈앞에 달이 떠오르고 세 청년들은 “마지막 물놀이”를 위해 바다로 달려갑니다.

<안녕>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전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묘하게 사무엘 베케트의 현대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 두 등장인물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고도(Godot)가 (비록 모호하고 불분명할지언정) 모종의 ‘희망’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안녕>의 세 남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달은 우리에게 그와는 조금 어두운 회색의 감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그보다는 차라리 ‘소멸’의 정조와 유사해 보이는 것입니다. 다만 ‘모조리 쓸어 없앤다’는 의미의 소멸(掃滅)이 아니라 ‘작은 죽음’으로서의 소멸(小滅). 다시 말해 원한이나 분노 등으로 인해 촉발된 반응적(reactive) 행위로서의 사라짐이 아니라, 어떠한 미련도 아쉬움도 없이 가볍게 존재의 스위치를 끄는 적극적이고(active) 자율적인 행위로서의 사라짐. 말하자면, 존엄으로서의 소멸. 세 남자가 떠난 자리에는 그들이 머물렀던 모래사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탈리아인 거리>는 ‘가사 노동’으로부터 ‘돌봄 노동’으로의 전환이라는 당대의 첨예한 정치적 주제를 전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녕>은 ‘서바이벌’(생존)로 축약되는 오늘날 청년 세대의 어두운 미래를 단편 특유의 시적인 문체를 빌어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진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초이스일 뿐이지요. 여러분의 베스트는 무엇이었나요? 내년 2018년에도 어김없이 막을 올릴 <유럽단편영화제> 상영작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본 뒤 각자의 베스트 단편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올해 이미 폐막한 유럽단편영화제 상영작들을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리랑시네센터(02-3291-55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내 주민 분들께 일종의 공동체상영 형식으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 미술, 외투를 벗는 예술

손원광

1.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서울은 미술관’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으며 2017년 올해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외 공공미술 관련 사례를 소개하였다. 국제컨퍼런스에서 다뤘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키워드로 요약하면 ‘공동 활동’, ‘참여’, ‘장소(공간)’ 그리고 ‘상황’이다. 세계 곳곳의 다양한 사례발표를 통해 현재 공공미술의 특징을 살펴보면 특정 공간을 무대로 즉 그 장소만이 갖는 맥락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획, 실행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번 컨퍼런스의 목적은 서울에서 펼쳐지는 공공미술에 대해 자성의 시간을 갖자는 데 있었다. 현 관계자들 사이에서 국내 공공미술은 ‘환경 미화’ 수준으로 평가절하되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그 동안의 국내 공공미술이 장소가 가진 복합적 맥락을 고려하기보다 개선된 미관만을 앞세워 진행되어왔기 때문이다.

공공 미술은 구체적인 방법과 목적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북구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성북구 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사업)들은 궁극적으로 ‘주민자치’를 향해 있으며 지역공간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공동 활동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지역의 관과 예술가 그리고 주민들 사이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소통, 충돌, 합의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소통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동 활동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필요한 수순이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을 건강하게 극복해내는 일은 꼭 필요하다. ‘시혜’의 관성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를 통해 우리 일상과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스템 설계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헌법 제1조 2항의 정신을 실현하는 일이다. 참여 속에서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관계성을 지속하는 일은 개인의 주체성을 되찾는 실천적 시발점이 될 것이다.

2.

‘호박이닝쿨책(정릉 아리랑시장 동네책방)’의 독서모임에서 함께 읽었던 『모두를 위한 예술?』 (우베 레비츠키)에서 주목할 만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파크픽션’은 이번 공공미술 국제컨퍼런스와 함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파크픽션’은 1995년 함부르크 장크트 파울리 지역주민들이 공원 조성을 위하여 항구부두협회(시민운동단체)와 다양한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한 프로젝트다. 프로젝트의 동기는 다음과 같다. 1980년대 공원부지 건축을 시가 계획하고 있었지만 지역 교회의 항의를 기점으로 주민이 직접 조성하겠다는 요구가 등장했다. 이후 문화청에서 프로젝트를 위한 예술가를 초청했는데 이들이 주민들과 합류하여 항구부두협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프로젝트의 계획절차는 예술가와 주민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마련되었고 거리축제, 여론조사,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의 축적은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공통된 필요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과정을 통해 결집된 영향력은 함부르크 시정부가 그들과 대화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은 다양한 도구들(공원설계도, 도서관, 설문조사, 토론과 안내행사)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담아 반영할 수 있었고 마침내 공원은 2003년 개장했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전시 중 하나인 <도큐멘타 2>에서 대중에게 선보였다. 이는 이 프로젝트가 제도권 내에서 공적 관심의 미술로서도 기능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의 노출은 자본의 포괄적 지배에 맞서 일반 대중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시키게 된다. 또한 기존의 광장 공간을

‘단순한 공터’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로 얼마든지 ‘참된 자유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실천적 경험은 ‘인지적 지도 제작’ 개념이 의미하는 것처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주체적 입장을 인식하여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여론에 대항해 자신의 요구를 당당히 피력할 수 있다는 의견과 부합한다.

공원 조성을 위한 ‘관여적 대상에서 참여적 주체로의 변화’는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티스트는 경제적 동기에 입각한 기술만능주의적 도시계획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창의적 잠재성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과제로 보았다. 개인의 주체성 찾기와 주민 자치를 향한 여정에서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문화예술 활동 프로젝트는 시민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3.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복잡다단한 국면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표현도구와 주제를 가져다줬고 표현방법과 주제의 폭 또한 폭발적으로 확장시켰다. 그 중 한 갈래가 공공 미술이다. 공공 미술이라는 용어가 학계에서 사용된 것은 5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공공 미술은 세계 곳곳에서 상황에 맞게 전시되었고 다양한 비평 속에서 거듭남을 계속하고 있다. 미술사학자 권미원은 공공 미술의 변화를 크게 “공공 공간에서의 미술”, “공공 공간으로서의 미술”, “공적 관심의 미술”의 과정으로 정리한다. 처음에는 1차원의 점을 찍는 관심으로 시작했다면 이후, 점과 점이 연결되어 발생하는 선의 관계를 고려하였고 이후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간을 주시하는 관점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공적 관심의 미술’ 사례들을 보다 보면 사회 운동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작가는 대상의 관계망에 깊숙이 또 장기적으로 관여해서 캔버스와 관객 사이의 거리를 사라지게 한다. 마치 동네에 사는 불편한 분들을 챙기기 위해 방문하



는 사회복지사나 척박한 곳에 교리를 전하려는 선교사 같기도 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활동을 예술적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물이 반드시 시각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은 일시적 공연(일상)과도 같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술이냐 운동이냐’에 대한 질문은 참여하는 활동 과정 속에서 ‘창의적 요소’가 발휘될 수 있는 ‘빈틈’의 유무가 기준이 될 것이다.

공공 미술은 예술이 사회의 거울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변형하고 더 나아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빛을 밝히는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표피적 감각만을 숭배하는 물신화된 관계 속에서 공공 미술은 예술가들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공공 미술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미술이 그 동안 ‘대상의 재현’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나아가 ‘대상의 변화에 참여’한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사진 : <http://park-fiction.net/gezi-park-fiction-hamburg/>

매니페스토(선언) 다시 읽기

- 중국 문화대혁명 결정문

이영주(제3언론연구소장)

한국 수구보수의 반복되는 ‘홍위병’ 찾기

노무현 정부 때 ‘홍위병’이라는 단어를 앞세운 정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홍위병’은 한국의 수구보수 정치세력이 김대중 정권에 이어 연달아 집권에 성공한 개혁진보 정치세력을 공격하는데 애용했던 용어 중 하나이다. 개혁진보 성향의 언론인, 문화예술인, 학자들이 이들에 의해 순식간에 노무현 정권의 ‘홍위병’이 되었다. 10년의 패배를 뒤로 하고 수구보수세력이 이명박 정권을 만들어낸 후 ‘홍위병’ 색출 작업은 다시 이루어졌다. KBS와 MBC 같은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계의 ‘홍위병’, 문화예술계의 ‘홍위병’, 학계의 ‘홍위병’ 등 ‘종북·빨갱이·좌파’라고도 불리는 홍위병들이 자신들이 있던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국정원이 흘려주고 수구보수언론이 확산시키는 정보에 의해 처참한 인격 살인을 당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가 막을 내릴 때까지 근 10년에 걸쳐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해 놓고 이들을 감시·억압했다. ‘홍위병’을 때려잡는다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정보공작과 정치공작, 감시와 통제, 억압과 훈육의 통치 행위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매우 많았다.

다시 10년이 지나 개혁진보세력의 세 번째 대표주자인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6개월이 흐른 지금, 정권을 빼앗긴 수구보수세력은 변함없이 ‘홍위병’을 호출하고 있다. 이들은 10년 동안 구축해 놓은 수구보수 언론계와 문화예술계, 학계가 흔들리지 않고 버티주기를 갈망하며, 자신들과 다른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문제인의 ‘홍위병’이라며 또 다시 진한 색깔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홍위병에 대해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일까? 더 나아가 우리는 홍위병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일까?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무산계급문화대혁명> 선언

2012년 9월 19일 <레디앙>이라는 진보적인 온라인 매체에 매우 흥미로운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과거 모택동주의자였고,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세력이었던 ‘조반파’에서 활동했던 첸리첸(錢理群·73) 전 베이징대 중문과 교수를 인터뷰해 정리한 기사였다. 돌고 돌아 그는 현재 중국 공산당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이다. 즉 과거 철저한 모택동주의자였던 그가 이제는 중국 공산당이 기피하고 감시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된 것이다. 그만큼 현재 중국 공산당에서 모택동과 문화대혁명은 다시 언급하기에 부담스러운 존재와 사건이 되었다. 첸 교수는 모택동이 공산주의 운동에서 매우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목숨을 걸고 공산 혁명을 일으킨 주인공이 자신들이 세운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화시키려 했기 때문에 독특하다는 것이다. 모택동은 체제 내부의 지도자와 권력자들이 결코 이런 변화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민중주의’ 노선을 채택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민중노선은 체제의 총체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자와 농민을 혼동의 주체로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모택동은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고 청년 학생들을 혁명의 전위 주체로 내세운다. 모택동은 중국 공산주의에 위기를 초래하는 당내 자본주의파(주자파)를 청산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비판받는 문화대혁명을 시작했고, 혁명 무대의 가장 급진적인 주인공이 바로 ‘홍위병’이라고 불렸던 청년 학생 세력이었다.

3) “문화대혁명 이해가 중국 이해의 출발: 첸리첸·백승욱 대담,” <레디앙> 2012년 9월 19일. 인용 및 참고.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문>으로 발표된 혁명 선언은 이렇게 시작된다. “사회주의 혁명의 새로운 단계로서 현재 진행하는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은 국민의 영혼을 움직이는 혁명이며, 중국 사회주의 혁명 발전의 더욱 깊고 광범위한 새로운 단계이다. 모택동 동지는 자본계급은 이미 무너졌지만 착취계급의 옛 사상, 옛 문화, 옛 풍습과 옛 관습이 대중을 타락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전복시키며, 이를 통해 과거의 착취계급이 다시 왕좌에 복귀하려 한다고 말한다. 이에 무산계급은 반드시 자본계급의 이데올로기적인 도전에 당당히 맞서야 하며, 무산계급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화, 새로운 풍습과 새로운 습관으로 사회의 정신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의 목적은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집권파를 무너뜨리고, 자본계급의 반동적인 학술적 권위와 모든 착취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교육, 예술, 그리고 모든 사회주의 경제기반에 적합하지 않은 상부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문화대혁명 선언은 문화대혁명의 주력군이 “광대한 농민과 노동자, 혁명적인 지식인과 혁명적 간부”임을 밝힌다. 또 “이름없는 혁명적인 청소년들이 적진으로 돌진하는 용감한 장수이며, 이들은 패기와 지혜를 가지고 대자보(벽신문)와 토론의 형식으로 의견을 주장하고 비판하며, 이미 알려져 있거나 혹은 숨어 있는 자본주의의 대표적 인물들을 대대적으로 공격한다.” 이 혁명적인 청소년들이 바로 홍위병이다. 문혁 선언은 가장 비판적이고 혁명적인 청소년들이 단점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정확한 방향으로 혁명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문혁의 주류이며, “당 내에 잠입한 자본주의 길을 걷는 집권파들과 옛 사회 습관 세력들의 크고 완강한 저항”을 무너뜨리는 과정과 경험을 통해 단련될 세대이다.

따라서 당의 지도자들이 용감하게 대중을 동원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화대혁명의 운명을 결정한다. 혁명 운동의 가장 앞에 서서 대중을 동원시킬 수 있는 사람

이 두려움 없는 공산주의의 전사이자 모택동의 훌륭한 학생이 된다. 용감한 공산주의의 지도자들과 이를 따르는 혁명 대중들은 무산계급의 정치와 모택동 사상을 앞세운다.

문혁 선언에서 비판의 대상은 “위대한 혁명 투쟁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수행하지도 않으며 무능하고 낡은 규칙을 고집한 채 관례를 깨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앞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당과 정부 부서 책임자이다. 이들은 대중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철저한 자기비판을 수행할 경우 대중이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점을 들추어 낼까봐 두려워한다. 집권파는 대중의 폭로를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에 각종 핑계를 들어 대중운동을 억압한다. 그들은 탄전을 부리거나 흑백을 전도하는 방법으로 문화대혁명 운동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자 도모한다. 또 이들은 매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면서 상황을 돌파할 수 없을 때 음모를 꾸미고 중상모략을 일삼으며 혁명과 반혁명의 경계를 허물고 혁명파를 공격한다.” 따라서 당과 지도자들은 대중을 믿고 의지하며 대중의 창조적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모택동 주석은 “혁명은 아담하고, 점잖으며, 온화(溫和)·선량(善良)·공경(恭敬)·절검(節儉)·겸양(謙讓)하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문화대혁명의 지도자는 “좌파(급진파)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좌파를 발전시키고 강대해지도록 이끌어야 하며, 굳건하게 혁명 좌파에 의지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혁명 운동 과정에서 가장 반동적인 우파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중도파를 흡수하며 대다수를 단결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마지막에 95% 이상의 간부와 95% 이상의 대중을 단결시킬 수 있다. 힘을 모아 소수 극단적인 반혁명적 자본주의 우파, 반혁명적인 수정주의자를 공격하여 그들의 반 당, 반 사회주의, 반 모택동 사상의 범행을 충분히 폭로하고 비판하고 최대한 고립시켜야 한다. 이번 혁명 운동의 핵심은 당내에 자본주의 길을 걷는 집권파를 정리하는 것이다.”

문화대혁명은 교육의 개혁을 매우 중시한다. “넓은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넓은 교육방침과 방법을 개혁하는 것이 문화대혁명에서 지극히 중요한 임무”임을 밝힌다. 즉 문화대혁명을 통해 자본계급 지식인들이 학교를 지배하는 현상을 철저히 바꾸어야한다고 강조한다. 학교 개혁을 통해 “학교에서 반드시 모택동 동지가 제시하는 무산계급정치에 봉사하고, 교육 및 생산노동을 결합하는 방침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자는 덕육(도덕교육), 지육(지력의 개발 및 지식의 습득과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체육 각 방면에서 발전할 수 있고, 사회주의적 깨달음이 있고 문화 수준이 높은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행동지침을 내린다. “모택동 사상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무산계급정치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하며, 광대한 노동자와 농민, 간부, 그리고 지식인들이 모택동 주석의 저서를 배우고 활용하는 운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모택동 사상을 문화혁명의 행동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는 모택동 주석이 지금까지 제시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고, 대중에서 오고 대중으로 가는 대중노선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먼저 학생이 되고 나중엔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유물변증법을 제창하고 형이상학과 스콜라철학을 반대하여야 한다. 모택동 동지를 비롯한 당 중앙의 지도하에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은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1967년 8월 9일 《인민일보》) ⁴⁾

4) 중문을 직접 번역한 것으로 다소 어색한 표현이나 문장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STOP! 홍위병 써먹기 정치,

START! 청위병 폭력 국가의 청산

모든 권력은 자신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할 집단이나 대중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전체주의 권력일수록 더욱 그렇다. 문화대혁명을 폭력과 파괴, 피와 숙청으로 물들게 한 급진 세력의 핵심에 홍위병이 있었다. 그래서 홍위병은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고 지지하기도 힘든 대상이다.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90년대와 함께 몰락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을 보며, 또 그들이 지나온 사회주의의 역사를 보며 사회주의라는 정치 경쟁자의 종말을 선언한지 오래 되었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또한 스탈린이나 모택동, 김일성의 사회주의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재연되고 있는 ‘홍위병’을 내세운 수구보수정치세력의 정치적 공세는 더더욱 쓸모없다.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 또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사회주의나 모택동주의자들이 아니며, 사실 그런 것들을 거의 모른다. 또 민주당은 좌파 정당도 아니며 전형적인 친 자본주의 부르주아 정당이다. 기업을 앞세워 끊임없이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필요할 경우 노동권을 약화시키는데 동참해 온 정당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출현과 종말, 현재의 변화, 이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일 것이다. 또 진짜 해야 할 일은 수많은 ‘청위병(청와대보위병)’들을 양성하거나 지원하며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불온하게 물들인 수구보수세력의 반성과 사죄이다. ‘홍위병’이란 딱지를 덕지덕지 붙여대며 ‘청위병’들의 반인권, 반민주 폭력 국가를 만들어 온 이들의 반성과 사죄 없이 한국의 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

국민 개헌을 앞두고

김순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10조

이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행복 추구권’과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있다고 명시한다. 신분제 사회에서 행복은 특권층만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이었지만 17~18세기의 서양 사회에서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시민의식과 국민의식이 대두함에 따라 행복은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가 되었다.

* 이 글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주관으로 성북구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주민이 만드는 헌법 교실’ 강의를 바탕으로 하여 썼습니다.

신분제 국가에서 법이나 제도는 왕이나 지배자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이에 비해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은 국민과 국가를 대표한다. 근대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많은 인구와 복잡한 사회구조로 인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간접 민주주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이 있다는 전제 하에 유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정사는 헌정 유린의 역사다. ‘호헌철폐’라는 말이 있다. ‘호헌’이란 ‘헌법을 수호’한다는 말인데 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 수호 즉 호헌을 철폐해야 한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본래 취지의 헌법이 독재정권 시대에는 그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개정되어, 헌법을 통해 그 권력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 원리를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독재 정권의 헌법에서 벗어나 헌법의 기본 원칙은 잘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의 실행에서는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

경·정·관·언·학의 유착으로 인한 수많은 폐단과 비리가 있어왔고, 그러한 국정농단의 정점에 지난 해 촛불정국이 있었다.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이 촛불을 들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정당한 절차와 법에 의거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견제적 민주주의가 제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고 나서 그 의원이 국정에 충실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대로 맡겨둘 수밖에 없는 제도라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는 그냥 운에 맡기는 꼴이 된다. 또한

국가 공무원에 대한 어떤 견제나 평가 없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제대로 된 관료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견제적 민주주의가 없는 대의 민주주의는 통치자나 기득권자에게 곧바로 독재로 직행할 수 있는 보증수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17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개헌시민 행동 연성수 공동대표는 “모든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역설(力說)한다. 이러한 권력의 본성만 보더라도 견제적 민주주의, 통제적 민주주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견제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공정한 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국가를 수립하여 국민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은 국민 주권 국가에 맞도록 국민 주도의 개헌이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 국가일 뿐 아니라 현시대는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시대에 부흥하여 국민을 넘어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와 보편적 인권의 입장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 주도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개헌을 이뤄내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행복 국가로 한 발 내딛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민이 만드는 헌법 교실’ 강의를 통해 헌법과 개헌 논의를 각 장별로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고 그 중 몇 가지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정리해보려 한다.

우선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소리 높여 외친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대한 개헌 방향에 대해 살펴 보자. 헌법은 상징적 조항과 실질적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이 조항은 상징적 조항의 대표적인 것이다. 제1장 총장과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대부분 상징적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실질적 조항이 더 많다

헌법의 상징적 조항의 실질적 내용은 법률에서 보완된다. 그렇기는 해도 상징적 조항을 보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상징적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 제1조에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해 복무한다.”라는 항목을 추가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상징적인 조항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민이 국가 운영의 최고 결정권자이다. 따라서 국민주권 원리를 확고히 하여 대의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감사청구권 등 국민의 직접 결정권을 강화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청소년, 여성의 참정권, 다민족 등 다양성에 대한 추구로 행복한 사회로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3장, 국회(40조~65조, 26개조 53개항)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에 대해 살펴보자. 입법권은 국회에만, 기소권은 검찰에만, 판결권은 사법부에만 속한다. 이러한 편파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부당한 일을 우리 국민은 너무도 많이 겪어왔다. 국민은 투표 권한을 행사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번 개헌 때 국민입법권 명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즉 이 항목을 “입법권은 국민과 국회에 속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 개정을 위해 국민의 일정 인원이 서명을 하면 법 개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주도의 국회구성에 관한 개정도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제41조 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인데, 이 조항을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투표가치의 등가성이 유지되고 다양한 국민의사가 반영되도록 지방국회의원 1/2은 비례대표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입법권에 이어 법관 임명에 관한 제5장, 법원(101조~110조, 12개조 25개항) 제 104조 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의 조항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어찌하여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부의 신뢰도가 대한민국에서는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대표적인 이유로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장은 사법권의 수장과 사법행정권의 수장을 동시에 겸하고 있다.

사법권은 재판권(裁判權) 즉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행정권은 법관 등의 인사행정을 비롯하여 법원의 조직·구성 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것이다. 고위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나, 법관의 서열, 법원의 관료화,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대법원장이 사법권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권의 수장을 동시에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왕적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는 내부적으로는 관료제에 짓눌리고, 전관예우의 비리 유혹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개 재판부의 사법권 독립이 보장될 수 없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분립도 중요하지만, 사법부 내의 사법권 독립도 중요하다.

건국대 법대 황도수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법부의 과도한 신분보장은 관료제와 결합하여 자칫 법관으로 하여금 특권계급을 형성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분리되어, 권력자의 시녀가 되어 시중을 드는 것을 사법부의 관료화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판기관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과 ‘책임질 대상’이 국민 전체라는 점을 제도화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한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 ‘법’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될 때에 비로소 재판권이 특정인이 아니라, 지위의 고하,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민 전체에 대하여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다.

이에 **사법평의회**를 설립하여 사법행정권을 사법부에서 사법평의회로 독립시켜,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권력 분산이 되어야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판결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을 기할 것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민주화 조항 확대라는 항목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조항인 **제9장 경제**(119조~127조, 9개조 19항)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 대해 정리해 보자.

우리 사회는 경제양극화, 고용 불안, 비정규직, 청년 실업, 고령화, 저출산, 입시 경쟁, 경제성장을 둔화, 다문화, 부동산, 물가상승 등 수많은 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대이다. 게다가 3만 불 시대가 언제 올 것인가 하고 해마다 전망을 내놓고 있다. 2만 불 대를 원화로 환산하면 1인당 월 2백만 원 정도의 수입이다. 4인 가족 기준 8백만 원이다. 그런데 이 정도의 수입이 되는 가정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3만 불은 1인당 월수입이 280만원이 된다. 4인 가족이면 월 1천만 원 가량의 수입이다. 이것이 자신의 수입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경제 수준이 나아진다고 해서 행복도가 그만큼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 수준이 1만 불을 넘어서면 행복지수는 경제지수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세계 12위로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나, 국민의 생활수준이나 행복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 오히려 행복지수는 해마다 역행하고 있다. 잘 산다는 것은 단지 경제 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강신준 교수는 “촛불 민심에 부응하는 참된 경제민주화는 결국 노동의 민주화로 귀결된다”고 한다. 일례로 갑을 관계의 노동 사회에서 평등한 기본권이 보장되기 어렵다. 노동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의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10장 헌법개정(128조~130조, 3개조 6개항) 제128조 1항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에 대해 보자. 우리나라는 일곱 번의 반 헌법적 개헌과 두 번의 민주적 개헌이 있었다. 두 번의 민주적 개헌은 모두 헌법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치적 파란이 있고 나서 헌법을 바꾼 경우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 개정 요건으로는 국회의원 재적 2/3의 동의라는 국회통과 요건과 국민투표 요건을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개정 절차에서 국민은 결과에 대한 투표만 할 수 있을 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위 조항을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20/1000,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개정하여, 국민 발안 헌법 개정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왕적 독재 권력을 막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 위주가 아니고 정권과 통치자 위주인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 (大韓民國 憲法 改正史)

임시헌장: 1919년4월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첫 헌법

→ 임시헌법: 1919년9월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

→ 제헌헌법: 1948년7월17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제정(制定)하여 1952년7월7일 대한민국 헌법 제2호 개정 전까지 존재한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호'라고도 한다.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0장130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승만 취임)

→ 대한민국 헌법 제2호: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해 1952년7월7일 일부 조항이 개정된 헌법이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이래로 첫 번째로 개정된 헌법으로 발췌개헌이라고도 한다. (이승만 재임)

→ 제3호: 1954년11월29일 대한민국 헌법 제2호가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일부 조항이 개정된 헌법이다 (이승만 재임)

→ 제4호: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 4·19 혁명을 통해 1960년6월15일 일부 개정된 헌법 (이승만 하야)

→ 제5호: 1960년11월29일 일부 개정,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 원리를 규정. 이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 제6호: 1962년12월26일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하며 개헌 (박정희 취임)



→ 제7호 : 박정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의3선이 가능하도록1969년10월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이 다 (박정희 재임)

→ 제8호(유신헌법) :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12월27일에 통과시킨 헌법이다.(박정희 재임)

→ 제9호 : 제5공화국 헌법. 1980.10.27, 전부개정,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되, 선거인단은 국민이 선출하도록 개정하였다 (전두환 취임)

→ 제10호(현행) : 제6공화국 헌법,헌법이 개정된1987년을 따서87년 헌법이라고도 한다. 1987년10월29일 전부 개정.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풀리지 않고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1987년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되어 개정된 헌법 (전두환 재임)

이승만 대통령 임기: 1948년7월24일~ 1960년4월26일 (약12년)

박정희 대통령 임기: 1962년3월23일(관한대행 취임일) ~ 1979년10월26일 (약17년)

전두환 대통령 임기: 1980년9월1일~ 1988년2월24일 (약8년)





야책 좌담

『82년생 김지영』을 말하다



사회: 초롱초롱(이종찬)

참여자: 스완(홍승완), 사월(송정은), 코크니(송석진), 들풀(이은아),
야책권장(김정훈), 썸머(고지혜)

정리: 셀레나(김가희), 초롱초롱

을 하반기 <야책>에서는 조남주 작가의 장편소설 『82년생 김지영』을 화제로 뜨거운 토론이 촉발되곤 했다. 그 시작은 <야책> 강독모임에서였는데, 그 당시 강독회에서 읽고 있던 책은 『테마 현대미술 노트』로 『82년생 김지영』과는 전혀 관련 없는 책이었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김지영’ 얘기로 빠져 있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곤 했었다. 강독회 사람들은 이 현상을 재미있어하면서도 신기해했고 책을 읽지 않고서는 대화에 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의외로 훌륭한 문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서 촉발된 감이 없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여성 일반의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좋았다는 의견이었다. 이번 좌담회는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다는 오늘날 페미니즘에 관한 참여자들의 생각과 경험을 『82년생 김지영』이라는 매개를 통해 이야기해보려 기획되었다. 잊혀질만할 때 좌담회로 ‘김지영’이 다시 호출되었다. 이런 현상을 보니 오늘날의 ‘김지영’은 하나의 증상처럼 쉽게 사라질 운명이 아니었나 보다.

초롱초롱) 지금은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페미니즘 2.0’ ‘페미니즘 리부트’의 시대입니다. 이 페미니즘 열풍이 독서계에 미친 파급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베스트셀러 상위 차트 거의 대부분을 페미니즘 관련 서적들이 싹쓸이하다시피 했지요.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문학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페미니즘 소설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당대의 페미니즘 운동을 바라보는 각자의 생각을 서로 가볍게 공유하면서 오늘의 좌담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야책권장) 페미니즘이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신체적·지적 능력의 차이가 다 있는 것처럼 그런 각자의 차이를 인정해주는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걸 잘 하네’ 하고 인정해주고, ‘넌 왜 이걸 못 하나’하는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애가는 정도의 범주로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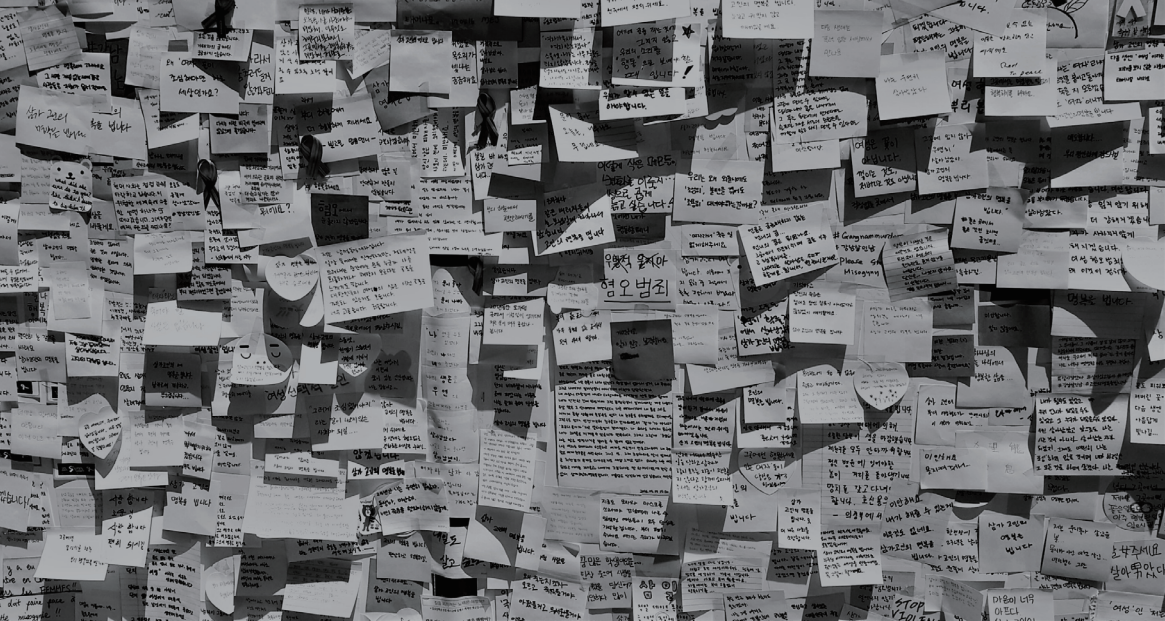
스완) 저는 어려서부터 성별로 인한 차별에 대해 불편함을 느껴왔어요. 특히 최근 강남역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는 온라인상의 게시물들이나 댓글들을 보면 여성혐오가 난무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여자 친구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강남역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성혐오’와 ‘묻지 마 살인’이라는 주장으로 극명하게 나뉘어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페미니스트들뿐만 아니라 보통 여성들의 경험담들이 수도 없이 나오게 되었고, 저는 그들의 주장에 공감할 수 있었어요. 강남역 사건이 페미니즘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성 인권의 신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조리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에요. 최근 ‘우리에게는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캐치 프레이즈가 있었는데 저는 모든 선생님들이 페미니스트 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초롱초롱) 그런 말을 하면 남성주의자들로부터 역차별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웃음) 그들이 외치는 ‘양성 평등’이라는 말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자신들이 여성에게 차별당하고 있다는 맥락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성 평등’이라는 말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의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의미예요. 진단과 처방이 완전 잘못된 거죠. 대표적으로 남성연대 대표의 자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니다.

야채권장) 남성연대를 생각하면 분노해야 할 대상을 완전히 잘못 지목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들이 느끼는 불평등은 여자들 때문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여자들이 만만해서 그런가?

스완) 그들의 비논리적 주장이 남성들을 선정적으로 건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한참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들풀) 여성의 차별과 불평등 문제는 혐오와는 다른 문제로 봐야할 것 같아요. 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양자가 같이 얘기되다보니 논쟁이 격렬해지고 서로에게 상처만 입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성차별’과 ‘여성혐오’를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초롱초롱) 영어 단어 ‘mysogyny’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학문적 용어로 번역된 이 말의 한국어 어감이 너무 강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같은데, 고유명사 그 자체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들풀)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싫어하는 게 ‘혐오’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상한 단어를 붙이잖아요. ‘맘충’, ‘된장녀’. 특히 된장녀는 이제 혐오의 말도 아니죠. 그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서 여성을 비하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한남’이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여자한테는 벌레 같은 단어를 붙인 것과 너무 비교되잖아요. 페미니즘과 사회적인 혐오 문화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해요.

사진 : <http://murutokus.kr/?p=12185>

썸머) 최근의 페미니즘 이슈는 실제로 여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여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에 불과한 것 같아요.

야책전장) 페미니즘이 핫이슈라면 지금 저도 페미니즘 책을 읽고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핫이슈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핫이슈인지 잘 모르겠어요.

스완) 최근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는 많이 보이지만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상업적으로 소비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월)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사실이에요. 지나가는 단어로조차 듣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지나가면서 들리는 단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저도 핫이슈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게 된 정도는 되었지만 누군가가 페미니즘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썸머) 저는 이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사람들이 말을 하다보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요.

초롱초롱) 이제 소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각자 소설을 어떻게 읽었는지 간략하게 총평을 해주세요.

야채권장) 『82년생 김지영』의 주인공은 82년생이나간 최근의 일을 다룬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읽었던 신경숙, 김형경 등의 작품에 나오는 여성들의 삶과 다른 것을 기대했었는데 시대가 뭐가 잘못된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5,60년대에 태어나 살아온 여성들의 삶과 어쩌면 이렇게도 다르지 않은지, 변한 게 없는지 너무 이상했어요. 90년대 이후 신세대, X세대의 등장으로 세대가 많이 변해서 자기들 할 이야기는 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혼과 동시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김지영의 모습에서 이전 세대와 그리 다르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되었어요.

썸머)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여성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전보다 오히려 짐이 더해진 거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월) 게다가 결혼 후에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좋지 않나?하는 시선도 무시 못하죠.

들풀) 여성의 삶은 하루에 세 가지 패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일어나서 애 학교 보내기, 직장생활, 그리고 퇴근 후 저녁밥 하고 애 자기 전.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요.

썸머) 직장에서는 여성이 애가 있으면 충분히 회사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면접에서 출산에 대한 질문을 받아 보기도 했고요. 나이 있는 여성은 채용하지 않으려 하는 현상이 있어요.

야채권장) 옛날 어머니들은 훨씬 더 힘들었는데도 씩씩하게 살지 않았느냐 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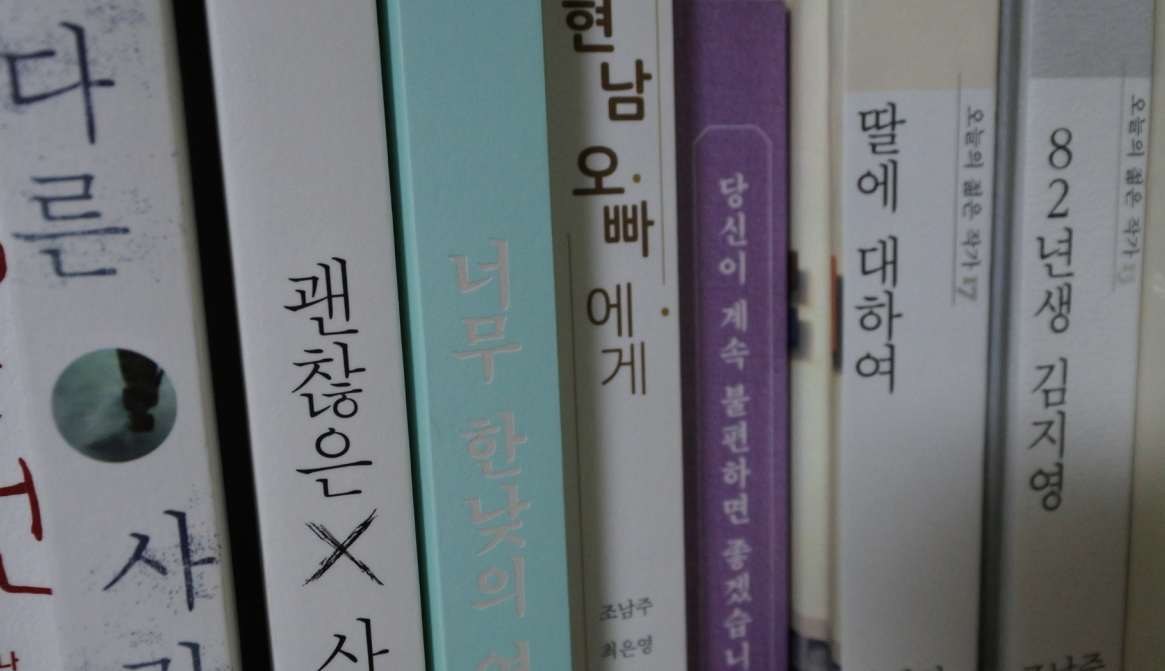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옛날에는 집안과 동네가 공동으로 책임져주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가 되다보니 더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월) 예전 여성들이 힘들었던 것도 당연한 것은 아니죠. 그런 잘못된 전제 하에서 요즘 여성들이 약하다는 표현은 듣기 불편해요. 예전 여성들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던 상황에서 좋은 남편, 좋은 집안 만나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 쪽박 차는 신세였잖아요. 떡 장사 하면서 육남매 키우는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그런 어머니상에 박수치고 하는데, 그 고생이 당연한 것이라 말하는 태도가 불편해요.

들쭉) 모성신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사월) 그렇게까지 신화적인 존재는 아닐지라도 제가 경험한 주변의 많은 어머니들은 아버지들보다 가정에 더 헌신적이었어요. 개인의 삶을 봤을 때 여성으로서 개인적 삶을 많이 포기하신 걸로 비춰지거든요. 또래 가정을 보면 어머니의 희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썸머) 쓸쓸한 것은 그렇게 살아오신 어머니들이 자신의 딸에게 그런 삶을 강요한다는 거죠. 김혜진 작가의 『딸에 대하여』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동성애자 딸에게 엄마가 “애도 못 낳고, 결혼도 못 하는데 굳이 뭐 하러 살아가느냐”고 말하자 딸은 “엄마 같은 사람들이 그걸 막는다고 생각하지 못해?”라고 말하는데, 정작 가부장제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나도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너도 참고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현실이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살다보니 그 삶이 당연한 것이 되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초롱초롱) 노멀(normal),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무의식적, 무비판적으로 강요해왔던 노멀. 이른바 ‘정상(normal) 가족 신화’에 대한 반격이 이제 조금씩 시작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노멀’인가? 수많은 다양한 ‘차이들’이 있잖아요. 성소수자, 인종적 소수자 등등. 사실 소수자는 특권화된 예외적인 케이스도 아닙니다. 여성학자 정희진 선생도 비슷한 얘길 한 바 있는데, 우리 모두가 각자 어떤 분야에서 소수자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요.

스완) 다시 소설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이 책은 마치 페미니즘의 입문서처럼 김지영을 통해 다양한 사례들을 빼곡하게 다루고 있어요.

초롱)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소설에는 여성억압의 다양한 케이스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총집합 되어있죠. 오다가 떠오른 표현인데요. 『82년생 김지영』은 ‘빅데이터 소설’입니다. 일간지나 주간지 등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여성억압의 사례들, 혐오의 사례들을 재조합해서 김지영이라는 한 인물에 모조리 박아

놓은 것 같은 인상이에요. 통계와 수치에 기반해서 중간에 스킵하면서 넘겨도 내용을 알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좋은 예술, 좋은 문학은 굉장히 미소한 이야기, 미소한 인물, 미소한 상황에서 그 이야기에 전력투구해 나가는데 기이하게도 그런 작은 범위에서 어떤 보편성을 끌어내죠. 구체적 보편성어요.

야책권장) 『82년생 김지영』도 보편적이긴 하던데요.

초롱초롱) 그건 ‘보편성’의 오독이라고 생각해요. 소설 말미에 실린 여성학자 김고연주 선생의 해설에서도 이 소설을 ‘보편성의 소설’이라 명명한 대목을 보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차라리 그건 ‘일반성’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82년생 김지영』은 ‘보편적인’ 소설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설이에요. 최근 인상적으로 읽은 김숨 작가의 소설 『한 명』의 표현을 빌자면, ‘한 명’(하나)에서 시작하지 않은 소설입니다. 저는 김지영의 구체적인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작가가 의도한 것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생각의 지점이 깊어집니다. ‘소설’(픽션)은 ‘기록’(논픽션)과 달리 어떤 지점에서 제 고유의 표현 가능성을 확보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록이 아니라 소설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나서 여전히, 지금도 끝까지 해소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월) 한 명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하나의 화두를 던진다는 의미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게 다 내 얘기인데”라고 읽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얼굴이 투영되어있는 것이겠죠.

썸머) 저도 소설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읽은 부분까지는 제가 모두 경험

한 일들이에요.

야채권장) 저도 읽으면서 그 인물에 공감해 들어갔어요. 예전에 대성통곡하면서 본 신경숙 등의 소설과 아주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스완) 처음에는 ‘문학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가 다시 읽으니까 건조하게 쓰여진 만큼 팩트가 강조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더욱 더 공감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작 나왔어야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초롱초롱) 소설적 몰입의 측면에서 저에게는 전혀 다가오지 않았어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두 층위로 나눠보자면 문학적 완성도나 미학적 측면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담론적 효과,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스완) 저는 의도만 명확하다면 굳이 장르를 구분하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코크니) 평소에 페미니즘에 관한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야 전체적인 사회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책은 일반 대중들이 모두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소설로도 몰입해서 읽었고, 르포르타주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읽었어요.

들풀) 작가가 의도적으로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썼다고 하면 그래도 문학적 평가를 못 받는 건가요?

초롱초롱) 『82년생 김지영』은 유수 출판사에서 젊은 작가상을 받은 소설이에요. 제도적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순 없죠. 다만 그와 같은 평가와는 별도로 이 소설을 읽을 때 폐부를 찌르거나 그 인물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거나, 소설을 읽고 나서 어떤 소설적 증상을 앓게 되는 심적 효과가 제게는 없었어요. 장강명 소설가가 자신 포함 최근 부각되는 소설들의 어떤 경향성을 두고 ‘월급 사실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척이나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힘들게 일하고 돈을 버는 월급쟁이들에게 잘 읽힐 만한 소설을 쓰고 싶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습니다.

들풀) 『82년생 김지영』을 기존과 다른 새로운 소설의 형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썸머) ‘월급 사실주의’,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투자와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읽을 수 있는..... 노벨문학상 수상작들은 공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초롱초롱) 확실히 저의 미적 취향은 그 쪽이 아닌 것 같아요.

들풀) 저는 이게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설이었다면 안 읽었을 거예요. 80년대 페미니즘 소설은 감성적인 접근이 강해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첫 페이지를 펴서 읽는데, 내용이 딱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며 읽었어요.

썸머) 작가의 의도였다면 적중한 것 같아요. 보고서였다면 읽지 않았을 거고, 진지하게 내면성을 끌어내는 소설이었어도 읽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런 게 ‘월급 사실주의’인 건가?

들풀) 주인공 자체도 페미니즘에 대한 의식이 없는 너무 평범한 인물이잖아요. 이게 ‘페미니즘 소설’인가요?

사월) 페미니즘이라는 생각도 못 했어요. 현대 여성에 대한 묘사 정도로 생각했어요.

코크니) 제가 이 소설이 페미니즘 소설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페미니즘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에게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책이기 때문이에요. 페미니즘 소설로 분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소설을 읽고 페미니즘에 대해 더 공부하고 더 알아보고 싶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어요.

썸머) 작가가 스스로 페미니즘 소설이라 말한 적 있나요?

초롱초롱)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여성의 인 권은 존중해.”와 같은 레토릭이에요. 형용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페미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가 부지불식간에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라는 용어를 부정적인 용어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나는 ~가 아니지만’이라고 말하는 화법은 기득권이 짜 놓은 프레임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라 생각해요.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면 불순분자나 반동분자로 싸잡아 몰고 가려 하는 어떤 폭력적인 무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봐요.

야책권장) 그렇다면 왜 페미니즘이 터부시되었을까요?

사월)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부정적 이미지로 전달되었던 것 같아요. 여성이 ‘난 페미니스트야’ 하면 센 여자야 하는 분위기로.

야책권장) 센 것을 싫어했나? 모두들 여자가 센 것을 싫어하지.

초롱초롱) 소설의 결말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요. 에필로그 부분이 김지영의 증상을 진단하는 의사의 관점에서 전개가 됩니다. 이 남성 의사는 일반적인 여혐주의자도 아니에요. 환자인 김지영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던 여성의 억압적 현실에 대해 깨닫기도 하지만 이 의사는 정작 자기 병원 여직원에 대해서는 ‘역시 결혼한 여자를 뽑으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의 시각에서 김지영이라는 인물이 하나의 케이스(사례)로 대상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케이스는 영어로 ‘환자’잖아요. 대상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관점으로 에필로그를 구성한 것을 보고 차라리 김지영의 목소리가 전면화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월) 현실의 역설을 묘사한 것이 아닐까요? 남성들이 ‘그렇구나’ 하지만, 현실과 접목시켜야 할 상황에서는 “역시 결혼한 여자는 안 돼”라는 상황 말이에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너희들을 이해해. 하지만...”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초롱초롱) 여혐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성주의적 심성이 무의식에 깔려있는 부분이 역설적으로 더 무서운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썸머) 수많은 아버지들이 집에서 딸을 대하는 것과 밖에 나가서 다른 여성을 대하는 게 다르죠.

들풀) 가부장제는 남녀를 모두 다 힘들게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남자들도 설움과 핍박을 느낄 것 같아요. 읽으면서 “우리 남자도 힘들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남녀 대결이 아니라, 지배 권력의 층위 아래에 평범한 남성들 그리고 또 그 아래에 여자들이 있는 구조죠. 우리끼리 왜 싸우고 있나? 같이 연대해서 지배 권력을 깨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재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생각을 주입받고 사니까 폭력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폭력이라고 인지하면 안 되었던 거죠. 그게 여성의 위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한참 먹어서 거의 서른이 되어서 이런 이슈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을 때 여성주의적 텍스트를 접하면서 그런 여성의 위치를 인지하게 돼요.

썸머) 어릴 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속옷을 들추고 나서 “네가 좋아서 그런 거야.”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수로 오빠의 중요부위를 잘못 쳤을 때 엄청 혼이 났거든요. 남자의 신체와 여자의 신체가 이렇게 다르게 취급받는 현실에 대해서도 나중에서야 문제의식이 들었어요.

들풀) 요즘 학교에선 남자건 여자건 몸에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교육을 해요. 하지만 그게 사고의 영역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썸머) 저도 사고방식이 먼저 변해야하는 것 같아요. 혼나지 않으려면 하지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하게 해야죠.

들풀) 가르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자 친구 몸에 손대면 오해 받아. 오해

받지 않으려면 하면 안 돼.” 이런 방식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슈가 되고 당장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니까 면밀한 준비 없이 학교에서 교육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스완) 사회를 보던 초롱초롱이 급한 일로 중간에 가셔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들쭉도 지금 가야하는군요.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오늘 좌담이 어렵게 성사된 만큼 끝까지 함께 못하는 분들이 계셔도 이해해주세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하면서 정리하기로 하지요.

야책권장) 과거에 비해 사는 모습은 달라진 것 같은데도, 어린 친구들이 『82년 김지영』에 공감하는 것을 보면 세상이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썸머) 어머니랑 얘기하다 보면 “그럼 우리 세대가 잘못했다는 거야?”라며 불편해하시는데, 윗세대에게 바라는 점은 “그 때는 몰라서 그랬지.” 정도만이라도 인정해주면 좋겠어요. 위, 아래가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사월) 결혼한 친구들이 싱글 여성을 자유롭게 생각하며 질투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것이 질시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지 그것도 안타까워요.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건, 싱글이건 “누가 더 편하네, 누가 더 낫네.” 하며 구별 짓지 않는 사회적인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크니) 오해와 관련한 격언으로 대신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권리가 있고, 나는 나를 해명할 의무가 없다.”

스완) 차별을 반대하는데 왜 찬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야책권장) 세상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뭔가를 바뀌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과도기라고나 할까요? 바뀌려는 힘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야책권장의 과도기가 아닐까? 라는 말과 함께 ‘야책 좌담 『82년생 김지영』을 말하다’는 끝이 났다. 이번 좌담은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보다 김지영과 동갑내기들인 82년생 30대들과 20대, 그리고 40대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의 생각을 알아간 좌담 과정은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좌담은 즐겁게 마쳤지만 못 다한 숙제를 남겨둔 채 끝난 것 같다. 그 숙제에 대한 답을 찾는 많은 시도들을 지켜보고 응원해야 할 것 같다.





